metro®
메트로 2014년 9월 29일 월요일 제3064호 www.metroseoul.co.kr

모으면 모을수록 대박 혜택!

혜택 가득한 자유
하나 Free

자유여행을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하나Free" 혜택!
모으면 모을수록 커지는 대박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많은 혜택 누리세요~!

▸혜택 UP | 하나Free 상품 동시 구매 혜택!

하나Free상품	할인혜택	마일리지혜택
자유여행만들기: 해외호텔 + 항공권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최대 30%	
항공권 + 해외호텔	해외호텔 10% (단 료칸, Ibis, Adagio 호텔체인 할인 제외)	5,000마일리지 추가적립
항공권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은 항공권과 당일 동시 구매시 할인적용)	5,000마일리지 추가적립
해외호텔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은 해외호텔과 당일 동시 구매시 할인적용)	총금액의 1%마일리지 추가적립 (최대 5,000 마일리지)

혜택 조건

- 하나투어닷컴을 통한 온라인 예약에 한해 혜택을 드립니다.
- 동시구매는 반드시 같은날 자정 이전에 모든 예약을 하셔야 혜택이 적용 됩니다.(단, 해외호텔 할인 적용은 예약일자와 무관함)
- 할인 혜택은 반드시 전화로 할인 요청을 하셔야만 할인 적용됩니다. 단, 자유여행만들기의 상품 조회시 가격은 이미 할인 적용 된 가격입니다.
- 하나투어마일리지클럽에 가입하셔야만 마일리지 적립을 받으며 예약코드당 예약자 한분에게만 적립됩니다.
- 추가 마일리지 적립은 상황에 따라 늦어질수 있으나, 항공출발일 및 호텔투숙일 기준으로 그 다음달 15일 이전에 적립됩니다.
-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은 최대 할인율로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더블마일리지 적립의 경우 상품가격 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시 추가비용에 대한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 1566-0223

www.hanatourist.com

상기상품은 (주)하나투어에서 각각의 공급처에서 제공받아 알선/판매합니다. 항공기,열차표,입장권,숙박권 등은 해당 공급자의 판매규정에 따라서 취소위약금 등이 발생되오니 예약 및 구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주)하나투어 ■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26004-1993-6(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 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metro®
메트로 2014년 9월 29일 월요일 제3064호 www.metroseoul.co.kr

위례신도시 모델하우스 북적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정역 인근 위례신도시 모델하우스가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한 인파로 크게 붐비고 있다. 이날 모델하우스 주변 도로는 방문객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었고 모델하우스 옆에는 이른바 '떴다방'이 등장하는 등 분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연합뉴스

대기업 총수 선처 카드 '만지작'

'투자결정 지장' vs '법치주의 부정' 찬-반 엇갈려
정부 '경제 살리기' '法 공정집행' 우선순위 고심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재벌 총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정부가 기업인을 선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계와 산업계는 이를 반기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투자자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기업인 선처론'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셈이다.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 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이들 그룹의 회장은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투자·경영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최 부총리는 "주요 기업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에 지장이 생긴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을 집행하는 부처의 수장과 부총리가 이같은 발언을 하면서 재계는 총수들의 사면과 경영 복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기업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스템으로 회사가 돌아갈 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투자나 전략이 필요할 때 액션을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특성상 '회장님의 부재'는 기업은 물론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총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독특한 환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의 역할과 비중이 제한된다. 대규모 프로젝트 가동 여부나 고용·투자 확대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한 것도 '총수의 부재'가 낳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실제 CJ룹은 올해 상반기 약 5000억원에 해당하는 투자가 중단 또는 지연됐다. 이는 당초 예상한 투자액 1조 3700억원의 35% 규모다. CJ그룹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투자 규모를 늘렸다.

그러나 시장은 '재벌 총수 선처론'에 무덤덤한 반응이다. 오히려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반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분위기다.

26일 SK 주가는 전날보다 0.80%(1500원) 오른 18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년8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최 회장의 선처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주가는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

같은 날 CJ 주가는 2.17%(4000원) 하락한 18만원으로 마감했다. 이재현 CJ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조석래 회장이 조세포탈·배임 등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효성의 주가 역시 0.39%(300원) 내린 7만66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회장님이 없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최 부총리 주장대로 재벌 총수 풀어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다. 있는 자, 없는 자 간의 갈등이 더 커져 국민통합이 저해될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냐 법의 공정한 집행이 먼저냐'를 놓고 재계, 시장, 정치권,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지금 논쟁 중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내달 초 결정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 승인 여부를 다음달 초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28일 "시는 애초 임시개장에 대한 답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지만, 박원순 시장의 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결정 시기를 다음달 초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에 따른 안전과 교통 문제, 롯데그룹의 보완대책, 전문가의 최종 점검,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수집한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개장 문제는 사실상 정무적인 판단만 남은 상황으로 박 시장은 30일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뒤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시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당시 123층 타워동 공사장 안전사고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등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만약 다음달 초에 임시사용을 허락하면 롯데그룹은 2~3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에 저층부를 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다혜기자 ydh@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28일 국회 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세월호법 등 이견 못 좁혀…협상 '스톱'

이번주 본회의 정상화 분수령

지난주 '9분짜리 국회 본회의' 파행 이후 여당이 30일까지 한시적 협상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야당의 국회 정상화 논의 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국회 정상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0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정국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불참 속에 열린 지난 26일 본회의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상 곧장 산회시킨 뒤 본회의로 안건 처리를 미루자 다음 본회의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8일 "세월호법 핑계로 국회를 계속 보이콧 할 것인지 등원할지는 야당의 몫"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도 당장 기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국회 파행 사태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세월호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 이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10월1일부터는 정국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모든 대화채널의 복원을 호소하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에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일해야 하는 의무를 두고 정치적 전략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야당이 30일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신이 미룬 이번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한다면 여당이 계류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쪽 국회'를 강행하고 야당은 이에 반발, 대치 정국이 조성되면서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모두 파행할 수도 있다.

/이정우기자 cyclone@

<직접투자>

조세회피처 직투 7년간 25조

대기업↑ 중소기업↓… 역외탈세 추징액은 급증

국내 기업과 개인이 해외 50곳의 조세회피처에 7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국세청과 수출입은행 자료를 토대로 국내 기업과 개인 등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227억 75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를 매년 말 매매기준 환율로 환산하면 25조227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해외투자액 197조8865억원의 12.7%에 달하는 금액이다.

79.6%인 20조655억원은 대기업이 투자한 금액이며, 중소기업 투자액은 9.6%인 2조4802억원이다.

연도별로 2007년 1조6862억원, 2008년 2조9937억원, 2009년 2조1228억원, 2010년 4조3337억원, 2011년 4조246억원, 2012년 4조6473억원, 2013년 5조4186억원이다.

국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받았던 2009년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으로 8701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5조원대를 돌파했다.

전체 해외투자액 가운데 조세회피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8.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4%로 크게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볼 때 중소기업은 2007년 4085억원, 2008년 9580억원, 2009년 3464억원, 2010년 2153억원, 2011년 1932억원, 2012년 1977억원, 2013년 1611억원으로감소추세에 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2007년 1조8억원, 2008년 1조7401억원, 2009년 1조4939억원, 2010년 3조8475억원, 2011년 3조5752억원, 2012년 3조8918억원, 2013년 4조5162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세회피처 투자가 늘며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추징)한 건수와 액수도 증가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08년 1503억원(30건), 2009년 1801억원(54건), 2010년 519억원(95건), 2011년 9637억원(156건), 2012년 8258억원(202억원), 2013년 1조789억원(2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오제세 의원은 "조세회피처 투자 증가는 대부분 대기업이 투자액을 늘린 것이 원인"이라며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 확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과 탈세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과세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조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제64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 28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64주년 서울수복 기념 행사에서 해병대원들이 6·25 당시 중앙청 태극기 게양을 재연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뉴스

재외국민에 안전정보 실시간 안내 추진

● 정부가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사건·사고 등 안전 정보를 전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안전정보센터 설립 예산 40억원 등 관련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주로 외국에 입국할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되는 안전 정보가 더 정교하게 발송된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내달 활동 재개

●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다음달부터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의원은 28일 "다음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하반기 모임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서명 작업이 완료된 '국회 개혁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의 제출 시점을 비롯해 조문화 소위 재가동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재·보선 실시지역 기초선거 두 곳 뿐

● 다음달 29일 치러질 하반기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이 기초의원 보궐선거 2곳으로 사실상 확정돼 여야는 선거부담을 덜게 됐다.

2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0·29 재·보선 실시 지역은 현재까지 경상북도 청송군 나선거구, 경상북도 예천군 다선거구 등 기초의원 선거구 2곳 뿐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현재 새누리당 정두언·안덕수·조현룡 의원 등 3명에 대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지만 10월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위협 제거되면 핵문제 풀릴 것"

북한 리수용 외무상 유엔총회서 주장

북한 리수용(사진) 외무상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 조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히 종식돼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리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회원국 대표연설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한 유엔 성원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방적 경제 제재와 무역·금융봉쇄가 하루 빨리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 외무상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인권 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도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권 그 자체에 대한 가장 큰 유린"이라면서 "인권문제를 특정한 국가의 제도 전복에 도용하려는 온갖 시도와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다혜기자 ydh@

흉기 찔려 숨진 중령 타살 가능성은 희박

26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영내에서 현역 김모(44) 중령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헌병대가 시신을 부검하는 등 사인 규명에 들어갔다.

앞서 헌병대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서 김 중령의 시신을 부검했다.

부검 결과 김 중령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좌측 목 절창에 의한 경동맥 및 정맥절단'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부검결과와 목 부위의 주저흔 등을 볼 때 타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헌병대와 유족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병대는 부검과 별도로 김 중령이 숨지기 전 자신의 차량에 7차례 가량 탔다 내렸다 하는 모습이 근처 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하고 이 같은 행동의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GOP 전 소초에 의무병

1명씩 순차적 배치…의무후송항공대 내년 4월 창설도

앞으로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의 모든 소초에 의무병 1명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8일 "GOP 부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지형상의 문제 때문에 환자 발생 장소까지 접근하는데 지장이 많아 초기 응급처치가 어렵다"면서 "초기 응급처치를 위해 GOP의 전 소초에 의무병 1명을 순차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GOP 중대급 부대에 의무병이 배치돼 있다.

의무병 보강은 GOP 중대급 부대의 응급구조사 배치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22사단 총기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2016년까지 GOP 중대급 부대에 부사관 응급구조사를 보직시킬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GOP 소초별 구급함과 분대단위 구급낭의 내용물을 모두 교체하거나 보충했다"면서 "내년까지 GOP 모든 소초에 자동심실제세동기(AED)를 배치하고 개인별 '전투용 응급처치킷' 9만여 개를 전방사단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전방 소초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후송부대 창설도 앞당겨진다.

육군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의무후송항공대를 앞당겨 창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두 손 꼭 모으고'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2015 수시모집 논술고사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 볼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문화재청과 공조해 조선 중종(中宗)의 손자 풍산군 이종린의 분묘 등지에서 도굴된 지석(誌石) 558점을 개인 수장고 등에 은닉해 온 사립박물관장 권모씨와 문화재 매매업자 조모씨 등 4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서울 목동 광역수사대 브리핑실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한 지석들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임플란트 가격차 4.6배"

최대 390만원 달해

서울시내 치과의 임플란트의 가격이 최저 85만원에서 최대 388만원까지 가격차가 최대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28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치과병원별 임플란트 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 임플란트의 경우 종로구의 S치과병원이 390만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강서구 N치과병원은 100만원에 불과해 수입 임플란트의 가격차이는 3.9배였다.

또 국산 임플란트의 경우 서대문구 Y치과병원이 291만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구로구의 M치과병원은 85만원에 불과해 가격 차이가 3.4배로 나타나는 등 어떤 치과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최대 4.6배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임플란트 관련 피해 신고는 2011년 22건에서 지난해 43건으로 95.4% 급증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허위·과장 의료광고 대책을 마련하고 환자가 자신에 맞는 치과를 선택할 수 있게 의료진과 시술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박물관장 창고에 지석 558점이…

<묘지석>

문화재 매입업자 통해 사들여 수년간 보관

도굴된 지석 수백점을 수년간 숨겨온 사립박물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굴된 지석 수백 점을 문화재 매매업자를 통해 사들여 수년간 보관한 혐의로 사립 박물관 관장 권모(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씨는 2003년 6~8월 문화재 매매업자 조모(65)씨와 김모(64)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300만원에 지석 379점을 사들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지석 179점을 취득해 총 558점을 6월 적발될 때까지 보관한 혐의다.

지석이란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해 묻은 판석이나 도판으로 대개 본관·이름·계보·행적·가족관계 등이 적혀 있다.

권씨가 취득한 지석 가운데 379점은 경기도 성남시 풍산군 이종린 분묘 등에서 도굴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씨와 김씨도 검거해 문화재보호법상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다혜기자

"김주하 남편, 불륜 후 약속한 돈 줘야"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아나운서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9년 8월 다른 여자와 2년 동안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나자 내연녀에게 건넨 생활비를 포함해 3억2700만원을 김씨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을 한 창인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윤다혜기자

전국 사범대생 연합기구 만든다

교육현안 공동 대응 위해 내년 발족

전국 사범대학생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연합기구를 만든다.

28일 각 대학 사범대 학생회에 따르면 서울대·이화여대·공주대 등 전국 30여개 사범대 학생회는 가칭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을 만들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국 단위 사범대생 모임은 2000년 중반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졌고 2010년 '전국사범대연합'이 구성됐지만 2년 뒤 사실상 해체됐다. 중등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사범대생들의 특성상 지속적인 단결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기구 구성이 또다시 추진된 것은 지난해 말 교육부가 범정부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발맞춰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하는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은 이르면 내년 발족해 교사 임용에 관한 제도적 문제부터 시간선택제 교사, 사범대 학과 구조조정 등 교육 이슈에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서울여대 재정지원 3관왕 기념 이벤트

서울여대는 최근 2014학년도 교육부 재정지원 3관왕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과 행정부서 보직교수 및 단과대학 학장들이 이날 학생들을 격려하며 SWU(Seoul Women's University)노트와 간식을 전달했다.

서울여대는 ▲학부교육선도대학(ACE)육성사업▲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 특성화(CK-II) 사업에 선정됐다.

25일 오후 전혜정 총장(가운데)과 보직교수들이 서울여대 교육부 재정지원 3관왕을 기념하며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서울여대 제공

美 시리아·이라크 공습 확대

터키 국경마을 7차례 공격…IS도 폭탄공격 맞불

미국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 범위를 시리아에서 터키 국경까지 넓혔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중부 사령부는 시리아 북부 코바니를 비롯해 알하사카, 민베즈 등 터키와 국경을 맞댄 마을의 IS 시설에 일곱 차례 공습을 가했다.

공습 지역에 처음 포함된 코바니는 시리아 쿠르드족의 핵심 도시다. 지난 16일 IS가 이 도시를 공격한 이후 16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아랍 동맹국이 시리아와 터키 국경 지역까지 공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IS의 본거지로 불리는 락까와 이라크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공습을 해왔다. 최근 동부 유전 지역으로 일부 공격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이날 시리아 공습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가 참여해 미국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같은 공습에도 IS는 코바니 동부 지역에 폭탄 공격을 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는 밝혔다.

미국과 동맹국은 이라크에서도 공습을 퍼부었다. 미군은 이날 이라크 북부 도시 아르빌을 세 차례 공습했다. 프랑스가 미국 주도의 이라크 공습을 돕고 있으며 벨기에와 덴마크, 네덜란드도 조만간 이라크 공습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의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은 "미국과 아랍 국가의 시리아 공습은 이슬람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보복을 경고했다.

알누스라 대변인은 동영상을 통해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이들 국가는 우리의 다음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28일 온타케산 정상 부근에서 구조대가 부상한 등산객을 들것에 실어 나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日 나가노현 온타케산 폭발

등산객 30여명 중상…의식불명자도 속출

일본 나가노현과 기후현에 걸쳐 있는 온타케산(3067m) 분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8일 NHK에 따르면 온타케산이 27일 오전 11시53분께 분화하면서 화산재가 상공 1km까지 상승했다.

특히 화산재가 대량 분출되면서 등산객 등 30여명이 골절 등 중상을 당했다. 이들 중 의식불명인 사람도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온타케산 부근을 지나가는 일부 국내·국제선 항공편의 결항, 지연출발, 항로 변경 등도 잇따랐다.

일본 기상청은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313차례 화산성 지진을 관측했다"며 "비슷한 규모의 분화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화구에서 4km 범위에는 화산재 낙하의 위험이 있으며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인근 주택가까지 날아들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온타케산에서는 1979년에도 중간 규모의 분화가 발생해 산기슭의 농작물에 피해를 줬고, 가장 최근에는 2007년 3월 소규모 분화가 있었다. /이국명기자 kmlee@

'해리 포터' 투명 망토 미 대학 연구팀 개발

영화 '해리 포터'에서 나온 '투명 망토'를 머지않아 현실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뉴저지주 로체스터대학 연구진은 최근 대형 물체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술을 공개했다.

'로체스터의 망토'로 불리는 이 개발품은 렌즈를 여러 장 겹쳐 만든 것이다. 빛을 굴절시켜 렌즈 뒤에 있는 물건을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낸다.

이처럼 사물을 보이지 않게 숨겨주는 장치는 전에도 있었다. 다만 여러 각도에서 볼 때 사물을 보이지 않게 해주는 3차원 기능이 없었다. 가격도 매우 비쌌다. 로체스터의 망토 역시 빛을 굴절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보통 렌즈를 사용했다.

연구를 이끈 로체스터대 물리학과의 존 하웰 교수는 "망토를 만드는 데 1000 달러(약 104만원) 정도가 들었다"면서 "비용을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olidariedade nas ruas

Iniciativa. Produtora cultural, Yve Franco cria 'Se Precisar Pegue, Se Não Precisar Doe' em diversos pontos da cidade. Projeto, com página em rede social, já ultrapassou a barreira dos bairros cariocas e chegou à Brasília e até a Argentina

Yve Franco, de 29 anos, estava incomodada com a enorme quantidade de brinquedos do filho de 5 anos acumulados em casa. Para solucionar o problema, a produtora cultural resolveu doar os objetos. O que Yve não esperava é que essa iniciativa se tornaria um movimento mundial.

Há menos de um mês, o projeto "Se Precisar Pegue, Se Não Precisar Doe" reúne doações de comida, roupas e brinquedos em diversos pontos da cidade, como Flamen-

Yve criou o projeto após não saber o que fazer com os brinquedos antigos do filho

"Tem muita gente maldosa. De madrugada, as coisas costumam sumir. Por isso, a intenção é criar quiosques, para guardar as doações com segurança."

YVE FRANCO, 29, PRODUTORA CULTURAL

"필요하지 않으면 기부하세요"

metro Brazil

음식 등 도시 내 상자에

브라질 한 시민이 시작한 따뜻한 기부 프로젝트가 인근 국가로 퍼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민 이비 프랑쿠(29·문화 기획자)는 1개월여 전부터 '필요하다면 가져가고, 필요하지 않다면 기부하세요'라는 이름의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상자 안에 음식, 옷, 장난감 등 다양한 기부 물품들을 모으는 프로젝트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프로젝트 지점에 가서 기부를 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면 된다.

지역 주민 쉐일라 하무스(45·경영인)는 "이 프로젝트를 보자마자 기부할만한 것들을 찾으러 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정말 좋은 프로젝트다. 한 명씩 서로 돕다 보면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가 8000건을 넘어섰다. 또한 아르헨티나 등 여타 국가에까지 퍼져나갔다.

이비 프랑쿠에 따르면 처음 목적은 처치 곤란한 아들의 장난감을 기부하려는 의도였지만 지금처럼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될 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 어려움 또한 있다. 프랑쿠는 "나쁜 사람들도 많다. 새벽만 되면 물건들이 없어지기 십상이다. 더 안전하게 기부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가판대를 설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우주 체스 말 보셨나요?

metro Russia

모스크바 박물관 눈길

Собака ставит мат пастуху

최근 모스크바 고골 거리에 러시아 최초의 체스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는 종이와 성냥갑으로 만들어진 체스 말과 킹은 양치기, 퀸은 양치기 개로 표현한 몽골의 체스 말, 중국의 마오쩌둥이 선물한 체스 말 등이 전시돼 있다. 특히 마오쩌둥이 1952년 소련에 선물한 체스 말은 전통적인 중국인의 모습을 본 뜬 것으로 코끼리 뼈로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세계 최초로 '지구-우주 체스 대회'에서 사용된 말도 있다. 체스 박물관의 따찌야나 코레스니코비치 관장은 "우주 체스 대회에서 사용된 체스 말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제작한 것"이라며 "특수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체스 말이 밤에 우주 비행사의 코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특수 제작됐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가장 오래된 전시물은 프리드리히 2세와 나폴레옹의 전쟁을 형상화한 체스 말이다. 1850년에 제작됐다. 코레스니코비치 관장은 "사실 프리드리히 2세와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만난 적이 없다"며 "나폴레옹이 17세 때 프리드리히 2세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체스 판 위에서만 격돌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한편 모스크바 체스 박물관은 스위스와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다.

/이반 골로브첸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1984-2014
SK telecom 30th Anniversary
빠른에 익숙한 대한민국과
바른 ICT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한민국에게
빠른은 더 이상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은 생각합니다
빠른의 다음은 바른이어야 한다고
아이들이 스마트폰보다 가족의 손을 더 많이 만지고
사람들의 소통이 간편함을 넘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SK텔레콤이 [바른 ICT 프로젝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바른 ICT교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티움모바일] 과거, 현재, 미래 기술을 담은 이동형 ICT 체험관으로서 정보소외지역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바른 ICT 연구소]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연구합니다
ICT노믹스
ICT를 기반으로 사물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산업 또한 융합·재편되어
ICT가 사람, 산업, 세상의 큰 변화를 이끄는 시대를 말합니다
미래를 다시 쓰다
SK telecom

“나를 키운 건 시련… 지금도 극복 중”

문화 저변확대 획기적 사업 속속 진행
25개 직업 독특한 이력 아이디어 원천

사람이야기

■ 3년 임기 반환점 돈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67)의 첫 인상은 누구에게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자유분방하게 흩날리는 헤어스타일에 컬러감 돋보이는 안경,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하이넥 디자인의 재킷까지. 서초동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5층 사장실에서 만난 그는 인터뷰를 위해 준비된 접견실을 등지고 광장에 위치한 모짜르트 카페 야외 테이블로 직접 안내한다. “오늘 날씨 좋잖아요.”

행동과 말 하나에 정형화되거나 권위적인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도 그럴 것이 약 80%가 관료 출신인 역대 사장과 달리 다양한 이력을 소유했다. 잘나가는 방송사 PD로 시작해 작가, 작사가, 의류제작 판매상, 바텐더, 교수 등 무려 25가지 직업을 경험했다. 첫 인상보다 자유분방한 호기심과 도전정신으로 채워진 그의 인생 무대는 여전히 오픈런으로 상영 중이다.

–역대 예술의전당 사장과 다른 이력을 지녔다. 이런 면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평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누구든 자신의 이력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기업을 운영·관리한 경험도 있다. 여러 요소들을 균형감 있게 다룰 수 있는 점은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데 분명 장점일 것이다.

–1년 6개월간의 재임기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최고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공연계에 잔뼈가 굵은 사람도 아니라 주위의 우려도 있었다. 취임 직전 소극장(윤당아트홀)을 운영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취임 후 진행한 주요 사업들은 문화 저변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술의전당에 오르는 작품들은 국내 최고 제작진이 만들고 그만큼 관람료도 비싸다. 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국립오페라단이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3일간 고작 5000여 명이 보고 만다. 그래서 문화 소외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고급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국내에서 최초로 영상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부터 제주도 서귀포의 문예회관, 울릉도까지 상영돼 섬마을 어부도 수준 높은 발레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문화라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이 즐겨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문화융성으로 이어진다.

–영상화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14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다양한 각도로 무대와 그 이면까지 담아낸다. 단순한 촬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상의 질을 높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또 영상화가 관객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도 맞서야 했다.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한다면 관련 프로덕션이 더 늘어날 것이고, 문화의 저변은 분명히 확대될 것이다.

–예술의전당이 추구하는 문화융성의 길은 무엇인가.

서툴더라도 보통 사람이 생산자가 돼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클래식을 대중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가곡의 밤’을 개최했다. 2년간 10회 무료 공연을 열었다. 예술의전당 연간 관람객이 230만 명에서 취임 후 1년 만에 300만 명으로 늘어난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어린이 동요무대’도 세 차례 열었다. 값어치 있는 우리 문화가 사라져 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조상이 준 소중한 자산인 서예를 부흥시키기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명무실화된 서예박물관의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출근 첫날 기존의 사장 지정 주차구역을 없애버렸고, 또 300명에 가까운 용역 직원에게 1인당 3장씩 오페라 티켓을 선물했다고 들었다. 끊임없는 파격행보가 화제다.

다른 능력은 없지만 아이디어 하나는 많다고 자부한다. 그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정체돼 있는 것을 참지 못한다. 예술의전당에는 고객이 우선이어야 한다. 매사를 합리적으로 하려고 조직 분위기를 바꿨다. 전당의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계 조직에서는 특히 감성 경영, 창의 경영이 필요하다.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은.

대중문화와 뮤지컬 시상식은 있지만 클래식 관련 시상식은 없더라. 그래서 10월 8일에 제1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SAC AWARDS)을 개최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작품 중 16개 부문에 걸쳐 우수작을 시상하는 행사다. 이 역시 진행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걸 왜 당신이 개최하느냐”라고 물어올 때마다 “그럼 당신이 하시오”라고 했지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 1947년 제주 출생 • 한양대 연극영화과 졸업 • 동양방송(TBC) PD • 美 뉴욕 한미방송(KABS-TV) 편성제작국장 • 제일기획 Q채널 국장 • 삼성영상사업단 방송본부 국장 • OBS경인방송 시청자위원 • 서울예술대·추계예술대·세명대·상명대·한세대 겸임교수 •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 간사 • 윤당아트홀 관장.

–어려운 줄 알면서 새로운 일을 계속 시도하는 이유는.

헝그리 복서 스타일이다. 길이 없는 곳을 가길 좋아한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고교 때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왕따’였다. 한양대 영화과 출신으로 처음 지상파(TBC) 공채 PD가 되고서도 학연, 지연이 없어서 입사 초엔 또 왕따를 당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33세에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는 뉴욕에서 최초로 한인 라디오 방송을 제작했다. 일본·중국 방송은 있는데 한국 방송은 없더라. 그래서 무작정 에드워드 카치 뉴욕 시장을 찾아갔다. 생각지도 않게 2시간짜리 FM 채널을 따냈고 원룸 단칸방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시련이 나를 키웠고, 지금도 극복 중이다.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단말기 유통법, 알뜰폰에 호재될까

이통3사와 차별화 줄어…'저렴한 통신요금' 긍정적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통신시장에서 알뜰폰이 호재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불법 보조금이 근절된다. 다만 이에 따라 '호갱(호구고객·판매자가 속이기 쉬운 고객)'이나 '공짜폰', '버스폰' 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업계는 이처럼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 최근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알뜰폰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알뜰폰은 이통3사와 동일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 또한 동일하다. 일부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멤버십 혜택에선 차이가 있지만 알뜰폰은 기존 이통3사보다 30~50%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도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이통3사와 알뜰폰 업계 간 단말기 가격도 차이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앞세워 알뜰폰 업계에 비해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보조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알뜰폰 업계는 신규 가입 시에도 보조금 지급이 없거나 이통3사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이 때문에 알뜰폰 가입자는 중고폰이나 저가폰 이용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통3사의 자회사나 CJ헬로비전 등 보조금 지급 여력이 있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 업체들은 가입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와 비슷한 수준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요금제는 반값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면 가입자 유치가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된 점도 알뜰폰에 호재다.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되면서 출고가 인하 영향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단말기 유통법이 알뜰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관건은 대기업 계열 알뜰폰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관계다. 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알뜰폰의 장기적인 숙제"라고 말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400만명을 돌파했다. 지속적인 가입자 급증세에 연내 4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부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도 기존 6곳에서 최대 11곳으로 늘어나 가입자 확대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 우체국 알뜰폰은 판매 10개월 만에 가입자 13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큰사람, 스마텔, 위너스텔, 온세텔레콤, 프리텔레콤, 엠티티텔레콤 등 6개 업체가 우체국 알뜰폰 위탁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들 신청 업체 중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다음달 16일 최종 위탁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market index <26일>

코스피 2031.64 (−2.47)

코스닥 577.66 (+0.18)

금리(국고채 3년) 2.32 (−0.01)

환율(원·달러) 1044.50 (+1.00)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이 27일 용인종합운동장에서 3만1200여명의 용인시민과 삼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용인시 제공

갤노트4, 첫날 완판

통신사에 3만대 공급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사진)가 출시 첫 날 전량 완판되며 순항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갤럭시노트4 국내출시 첫날부터 이동통신 3사 예약판매 물량이 조기에 완판됐다. 26일 출시된 국내 통신3사에 공급된 갤럭시노트4 물량은 1만대씩, 총 3만대 규모였다. 출고가는 95만7000원이다.

여기에 통신사들의 다양한 이벤트도 한몫했다.

SK텔레콤은 선착순 1만 명을 대상으로 갤럭시노트4 사전 예약 가입자에게 삼성 정품 S뷰 커버와 휴대용 배터리팩(6000mAh)을 제공했다. KT는 갤럭시노트4 구매자에게 13만원 상당의 셀카봉과 삼성전자 정품 배터리팩을 무료로 증정했다.

LG유플러스는 예약 가입 고객 1만 명 전원에게 심박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삼성 기어 핏'과 대용량 배터리팩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양성운기자 ysw@

LG전자 '올레드TV' 시대 활짝 LG전자는 29일부터 '55인치 곡면 올레드TV'를 399만원에 출시한다. 이는 지난해 선보인 출고가 1500만원의 55인치 곡면 올레드TV 가격 4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다. /LG전자 제공

LH 아파트 하자분쟁 최다

소비자 불만 1위… 감리 부실 가능성

건설사와 입주민 간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체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LH가 99개의 단지에서 총 334건의 하자·분쟁조정을 신청해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아파트로 조사됐다.

이어 대우건설은 26단지(138건), 현대산업개발 23단지(53건), 롯데건설 29단지(47건), SH공사 17단지(3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접수건수별로 호반건설이 7개 단지에서 499개의 하자분쟁 조정신청을 접수했고 이중 인천 지역 1개 단지에서 475건의 하자분쟁 조정 신청이 이뤄져 집단 하자 발생이 의심되고 있다. 벽산건설이 5개 단지에서 323건의 하자분쟁 신청이 접수됐으며 경기 2개 단지에서 319건의 하자분쟁조정신청이 집단 접수됐다.

포스코건설도 8개 단지 228개의 하자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인천 1개 단지에서 221건의 하자 신청을 해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가 우수한 품질을 지녔는지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또 매년 하자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건설사가 조정에 불응한 건수도 매년 늘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하자 심사 결과 판정서가 교부된 비율이 2011년 97.5%에서 올해 9월까지 69.6%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 하자분쟁 조정 결과 조정서를 교부한 비율은 2010년 50.7%에서 2013년 6.8%로 줄어든 반면, 조정 결렬되는 비율은 2010년 2.9%에서 2013년 87.7%로 매년 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서민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LH의 하자신청 현황이 많은 것은 서민의 주거환경 및 안전이 불안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kimdt@

공채, 역사상식이 관건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필기전형 준비에 대한 구직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하반기 필기 전형의 트렌드는 '역사상식'이다. 역사적 지식과 이해 수준을 평가하려는 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공채에서 주요 그룹사는 필기시험에 역사영역을 신설했다. 역사 시험 대비를 위해 연대기별 사건을 정리하면 좋다. 한국사와 문학, 예술 등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것도 유익하다.

공간지각능력은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관건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상반기부터 공간지각능력 영역을 부활시켰다. 도형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복잡한 도형이 나오면 시간관리에 실패할 수 있는 분야다. 이를 위해 유형별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적 자신 있는 유형을 먼저 푸는 것도 요령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로또복권 제617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4	5	11	12	24	27	28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629,701,860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0,533,391
3등	5개 숫자 일치	1,090,284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우리은행 민영화 '속도'… 매각 성사될까?

issue&view

우리은행 민영화 시동, 이번엔

공자위 30일 매각 공고… 단독 입찰시 무산 우려 교보생명 신중 모드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우리은행 민영화가 이번주 경영권 매각공고를 필두로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민영화의 성사 여부는 오는 11월께 1차적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교보생명 외에 경영권 매각에 참여할 만한 투자자가 드러나지 않아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보생명도 단독 입찰 시 무산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0일 우리은행 지분매각 공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매각 공고를 내는 물량은 경영권이 포함된 지분 30%다. 이 물량에 대해선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예비입찰, 본입찰, 실사가격 조정, 금융위 승인 및 종결 등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수지분의 경우 10월 말 매각 공고를 내고, 경영권 지분과 소수지분 입찰 모두 오는 11월28일에 마감할 예정이다. 소수지분에 대해서는 투자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지분 0.5~10%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량과 매입 가격을 써내면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지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공자위는 투자자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자 1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권 포함 지분에 대해서는 12월 초 본입찰을 따로 해 내년 1월까지 최종 입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선 우리은행 민영화의 성공 여부를 '경영권+30%' 입찰의 흥행 여부로 보고 있다"면서 "이 입찰은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복수의 매수희망자가 나서야 입찰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매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경영권 지분 매각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교보생명 정도다.

공자위가 지난 6월 우리은행 민영화 일정 발표 후 시장수요 조사 결과 인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낸 곳은 없다는 전언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30일 매각공고가 나면 참여자들도 지분 매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보생명 측도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금산분리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다 신창재 회장이 은행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어 결국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보생명이 프랑스의 악사(AXA)그룹이나 맥쿼리, JP모건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가 잠재적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경영권 참여를 공식화한 적은 없다.

보험업계, 가을 음악행사 '풍성'

취약계층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발벗고 나서

보험업계가 가을을 맞아 음악관련 행사를 연달아 개최·후원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다음달 3일부터 사흘간 가평군 일대에서 열리는 '제11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후원한다.

올해는 퓨전 재즈 그룹인 엘로우자켓(The Yellowjakets)을 비롯해 앨런 홀스워스(Allan Holdsworth), 도미닉 밀러(Dominic Miller) 등의 기타리스트가 참여할 예정이다.

매년 이 대회를 협찬하고 있는 LIG손보는 이번 공연에도 강남 본사와 합정 사옥에서 전용 공연장을 여는 등 다양한 기획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오는 11월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삼성화재와 함께하는 로맨틱 클래식 시리즈인 '마크 위글스워스의 쇼스타코비치'를 후원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제휴해 진행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세계적인 지휘자 마크 위글스워스와 르노 카퓌송 바이올리니스트가 참여한다.

한화생명은 다음달 5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밤 7시 서울 북서울 꿈의 숲 라포레스타 앞 야외무대에서 '한화생명 문화놀이터-구석구석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에는 계열사인 한화손해보험 등과 '제2회 한화클래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어 어르신과 어린이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23일 서울 노원구 다운복지관에서 '500원의 희망선물' 200호 입주식을 개최하는 등 장애인 가정과 시설의 집수리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10년차인 이 활동은 당사 보험설계사(RC)들이 장기보험 신계약 판매 수수료 1건당 500원을 적립해 기부하는 사업이다. 흥국생명도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인 '따뜻한 집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저소득 어르신 18명을 초청해 '어르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황혼의 신혼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메트라이프생명도 지난 22일 서울대공원 자연캠프장에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캠핑 체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한화생명이 주말 밤마다 주최하는 '북서울 꿈의 숲서 야외 음악회'(왼쪽)와 흥국생명의 '따뜻한집만들기' 공헌활동 사진. /한화생명·흥국생명 제공

하나은행,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 선정 이형일 하나은행 PB사업본부 본부장(사진 왼쪽)이 지난 25일 리차드 머로우 아시아머니 편집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 상패를 수여받은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황금 연휴 앞두고 카드사 '이벤트' 봇물

공연·전시·캠핑·해외여행 등 할인 마케팅

오는 10월 초 개천절과 한글날 등 주말과 맞물린 황금연휴를 앞두고 카드사들이 본격적인 가을 맞이 행사에 들어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공연과 전시부터 캠핑과 해외여행까지 다방면에서 할인과 문화 혜택 등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나SK카드는 오는 30일까지 하나SK카드 컬처파크를 통해 '레베카' 공연을 결제한 고객은 VIP석을 20% 할인가에 볼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뮤지컬 '그리스'는 10월 19일까지 결재시 R석과 S석 모두 50% 할인된다.

롯데카드는 내달 17일 회원 7000명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초대해 '롯데카드 MOOV(무브): 뮤직' 콘서트를 연다.

지방 거주 회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9월 한 달간 롯데카드를 20만원 이상 사용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응모를 접수한 후 추첨을 통해 입장권을 배부한다.

씨티카드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양일간 가족과 캠핑을 하며 K-pop콘서트도 즐길 수 있는 '해피 캠핑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3곳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최고 6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마스타카드는 올해 연말까지 호텔스닷컴에서 마스타카드로 호텔을 결제한 고객에게 10%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또 10월말까지 예약 결제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특별한 경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대표적인 '트래블 세컨드 카드'로 꼽히는 '삼성카드3'는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이용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률이 국내 사용액(0.5~1%)의 두 배에 달한다. 또한 여행사, 호텔, 항공 등 여행 관련 적립처를 활용하면 최대 2%가 적립된다.

신한카드의 더 클래식(THE CLASSIC) 카드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과 전세계 500여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오는 10월말까지 항공 전용 상담데스크나 홈페이지 내 라이프플라자 여행사이트를 통해 KB국민카드(KB국민 비씨카드 제외)로 국제선 항공권 구입 시 5% 할인 혜택을 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경영권 강화·주주가치 높여라

삼성화재·SK·대신증권·대교 등 앞다퉈 자사주 매입

상장기업들이 경영권과 주가 안정을 동시에 노리는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주주이익환원 정책 기조와 맞물려 배당과 유사하게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있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 최근 대기업들의 주가는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삼성화재는 3년 연속 자사주를 사들인다는 소식에 공시 직후 닷새간 주가가 상승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예년보다 큰 매입 규모를 '파격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2년부터 자사주 매입에 나선 삼성화재는 지난해까지 2년간 연간 당기순이익의 39~47%를 자사주를 사들이는 데 썼다.

그러나 올해엔 순익의 79%에 달하는 5052억원을 자사주 매입에 쓸 계획이다.

이같은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가 부양 효과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제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 행위요건 충족에 필요한 지분율을 고려할 때 최소한 내년까지 자사주 매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삼성화재의 주주가치는 실제로 크게 올라갔다.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율이 2012~2013년 62~67%에서 103%까지 급등했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지주사 전환을 앞둔 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 출자에 나섰다.

SK 역시 최근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부양 효과를 봤다.

SK는 지난 5일 자사주(235만주)를 3760억원어치 취득할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가 160만원대에서 (26일)188만원까지 뛰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자사주 매입이다.

자사주 매입 목적에 대해 회사 측은 주가 안정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했으나 시장의 시각은 다르다.

향후 SK C&C와의 합병시 최태원 그룹 회장의 지분율을 방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증권업종 중에서는 대신증권이 이례적으로 최근 수년간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신증권의 취약한 최대주주 지분율(10.18%)을 보완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차원이라고 풀이한다.

중소기업들의 주가도 잇따른 자사주 매입으로 크게 상승했다. 대교는 지난 16일 강영중 회장의 자사주 371주 매입 소식에 26일까지 닷새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닥 상장 업체인 코렌은 86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인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장중 6% 넘게 급등했다.

류용석 현대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기업 측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며 "사내유보된 현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면 주가가 오르므로 주주이익 제고 효과도 동시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청바지 세탁법 이렇게~

짠순이 주부 경제학

착용감이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 있다. 바로 '청바지'다. 괜찮은 청바지 한 벌만 있으면 마음까지 든든해진다. 하지만 청바지도 단점은 있다. 청바지의 물빠짐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청바지를 자주 빨게 되면 늘어나거나 물빠짐 현상이 심해져 청바지가 바래 입지 못하게 된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처음 청바지를 세탁할 때에는 물빠짐 현상이 가장 심하다. 그래서 첫 세탁은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청바지 세탁법은 지퍼를 모두 채우고 뒤집어서 세탁하는 방법이다. 옷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 물빠짐을 방지할 수 있다. 세탁하기 전에 청바지를 뒤집어 주는 걸 잊지 말자.

또 청바지와 함께 다른 옷을 세탁할 경우 청바지로 인해 옷이 물들 수 있다. 그래서 청바지를 세탁할 때는 다른 옷과 분리해 별도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따뜻한 물은 옷을 수축시켜 옷의 변형이 올 수 있다. 가급적 탈수는 하지 말고, 물에 바로 건져내어 그늘에서 충분히 말려준다.

청바지를 널어둘 때에는 길이가 줄어들지 않도록 길게 완전히 펴서 건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탁 후 다림질을 하면 옷의 변형이 와도 복구가 가능하고, 오래 입어도 변형이 쉽게 오지 않는다.

소금물에 담가둬도 물빠짐을 방지할 수 있다. 소금과 물의 비율을 1대 10으로 맞춘 뒤, 그 물에 청바지를 반나절 정도 담궈둔다. 그 다음 세제로 헹궈주면 물빠짐 없이 깨끗하게 청바지를 빨 수 있다. 청바지 뿐만 아니라 다른 옷감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물빠짐이 걱정된다면 소금물을 이용해보자.

/김민지기자 minji@

서진원 신한은행장(왼쪽)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따뜻한 금융 실천합니다"

신한銀-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中企 지원"

신한은행은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의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외환과 금융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 금융교육 전용체험관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체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교육 참가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진행해 금융문맹 퇴치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조손·한부모·다문화 가족 85명을 초청해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가족간의 소통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I Love Family' 가족캠프를 진행한다.

가족캠핑은 캠핑요리대회와 맨손 송어잡기, 인절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참가 가족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할 시간과 유쾌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행복의 의미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한은행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적극 실천해 가정과 우리 사회의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임영록 전 회장,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

KB금융지주 임영록(사진)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9일자로 취하하고자 한다고 28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원·엔 환율 1년 내 800원대 가능성

전세계 금융사들은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향후 1년 안에 800원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 '더 뱅커'지 선정 세계 30대 은행 가운데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을 9월 중 동시에 전망한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 8곳의 내년 3분기 중 원·엔 재정환율 예측치 평균은 100엔당 887원이다.

8곳 모두 원·엔 환율의 추가 하락세를 예상한 가운데 크레디트스위스, 소시에테제너럴, 로이즈 등 3곳은 앞으로 1년 간은 900원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가 내년 3분기 중 원·달러 환율로 100엔당 873원을 제시한 것을 비롯해 ING(894원), 씨티(898원), JP모간(882원) 등 4곳은 800원 후반대로 하락할 것을 예상했다. 특히 BNP파리바는 1년 안에 100엔당 786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8곳의 메이저 금융사들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강세, 약세, 보합 등 다소 엇갈린 전망을 했지만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모두 추가 상승을 예상했다.

/김민지기자

애플 팀쿡 체제 무엇이 바뀌었나

아이폰6·플러스, 디스플레이 확장 흥행몰이 버그 굴욕 공식 사과… OS 안정성 사라져

애플이 잡스에서 팀쿡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지만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6(**사진 왼쪽**)와 아이폰 6 플러스(**오른쪽**)가 공개 직후 넓은 화면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작은 화면이라는 애플의 기존 철학을 깨고 대화면을 선택해 출시 이후 1000만대 판매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순탄한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애플은 최근품질문제로 곤경에 처했다.

아이폰6 플러스의 휨 현상은 최근 IT 기기를 리뷰하는 언박스 테라피에 '아이폰6 플러스 구부리기 테스트'라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아이폰6 플러스에 맨손으로 힘을 가했더니 구부러진다는 내용으로, 현재 이 동영상은 270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여기에 맥루머스 포럼에는 바지 주머니에 아이폰6 플러스를 넣고 다니다 구부러진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올라오며 논란을 가열시켰다.

또다른 문제는 애플의 OS 결함이다. 애플의 새 OS인 iOS8의 업데이트 버전인 iOS8.0.1을 공개한지 1시간 만에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돼 배포를 중단하고 고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이른바 '업데이트게이트(Update gate)'가 발생한 것.

iOS8.0.1로 업데이트 한 경우 기기가 기지국을 찾지 못해 '통화불가능' 메시지가 뜨거나 터치 ID 지문인식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심각한 오류가 드러났다.

애플은 iOS8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업데이트를 내놨으나 오히려 치명적 버그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부랴부랴 업데이트에 나섰다가 이마저도 황급히 철회한 것이다.

이후 하루만에 iOS 8.0.1의 본래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오류를 수정한 iOS 8.0.2를 배포했다. /양성운기자 ysw@

넵튠 AK수원점, 애플 공식매장 재오픈

넵튠 AK플라자 수원점 애플 매장이 25일 리뉴얼 오픈했다. 기존 넵튠 AK플라자 수원점 5층 가전매장에 위치했던 애플 매장은 수원역 대합실 인근 2층 매장으로 이동해 새로 오픈했다.

연면적 200㎡의 매장 규모로, 경기 남부권 매장 중 최대 규모다.

넵튠 AK플라자 수원점 관계자는 "애플매장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10월 5일까지 노트북, 아이패드, 헤드폰 등 당일 구매고객에게 한해 금액 할인과 사은품 등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넵튠 AK플라자 수원점이 있는 수원역은 경기도에서 하루 이용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 매일 9만명 내외가 이용한다.

특히 수원지역은 10개 이상의 대학이 밀집해 애플 매장 리뉴얼 오픈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래미안 vs 푸르지오 '맞짱'

입지·분양가 비슷 서초 최고급 아파트… 청약결과 따라 희비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분양 맞대결을 펼친다. 이 두 건설사는 앞서 지난 5월에도 용산에서 각각 '용산 푸르지오 써밋'과 '래미안 용산'의 동시 분양을 추진하다 '래미안 용산'의 일정이 연기돼 대결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서초동에서 경쟁하게 될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와 '서초 푸르지오 써밋'은 입지와 분양가가 비슷한 데다, 최신 설계와 기술이 적용된 최고급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라 청약결과에 따라 건설사 간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쾌적성 '래미안', 편의성 '푸르지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지난 26일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와 '서초 푸르지오 써밋'의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각각 우성3차와 삼호1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단지명부터 신경 쓴 티가 역력하다.

삼성물산은 기존 '래미안 서초'로 불리던 아파트에 서초를 대표하는 특별하고 품격 있는 최고급 주거단지를 짓겠다며 이니셜 S에 명성·품격을 뜻하는 Prestige의 합성어인 '에스티지'를 서브네임으로 붙였다.

대우건설 역시 푸르지오의 최상위 주거상품 브랜드인 '써밋(summit)'을 적용했다. 써밋은 정상·최고점·정점 등을 의미하는 서브네임으로, 세상의 중심과 삶의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고품격 주거단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두 단지 모두 지하철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역세권 아파트로 기본적인 입지는 큰 차이가 없다. 강남업무지구를 배후에 두고 있고, 강남대로,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등의 도로망을 비롯해 학군·편의시설이 우수하다.

◆특화설계에 첨단시스템 적용

강남 노른자위에 지어지는 만큼, 아파트는 고급화된 설계와 마감재가 적용됐다. 우선 삼성물산은 다양한 첨단 신상품 적용을 통해 보다 진화된 '커넥티드 하우스'(Connected House)'를 선보인다.

거실에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인 '스마트 네트워크 하스(Smart Network HAS)'가 설치된다.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12인치의 대화면에서 HD화질로 보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파일을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주방에는 미러링(Mirroring)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미러링 주방 TV'가 국내 최초로 들어간다. 미러링은 스마트폰에 뜨는 화면을 TV나 태블릿 PC 등 다른 영상기기로도 동시에 볼 수 있게 해 주는 화면전송 기술이다.

대우건설은 최상층 35층에 피트니스클럽을 배치,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탁 트인 조망을 감상하면서 운동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또 201동과 202동 사이에 26층 높이의 스카이 브릿지를 설치하고 그 안에 북카페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푸르지오의 친환경 기술인 '그린 프리미엄'을 적용해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도 유도했다. 이에 따라 공용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엘리베이터 전력회생 시스템, 친환경 물재생 시스템, 하이브리드 보안등 등이 설치된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아이파크백화점 내달 2일 가을 정기세일 아이파크백화점이 내달 2~26일 25일간 '가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아이파크백화점 제공

4분기 전세값 더 오른다

공인중개사 설문… 매매시장도 상승세로

전국 공인중개사 67.6%는 4분기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676곳을 대상으로 '2014년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전세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 '상승'이 67.6%(45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합'이 29.9%(202명)였으며 '하락'은 2.5%(17명)에 불과했다.

'4분기 매매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상승을 점치는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56.2%(380명)가 '상승'이라고 답했고 '보합'이 40.4%(273명), '하락'이 3.4%(23명)로 나타났다.

'4분기 유망 투자 상품'을 묻는 질문에는 27.5%(186명)가 '신규 아파트 분양'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아파트 매수'가 26.9%(182명), '상가'가 20.3%(137명),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이 13.9%(94명), '토지'가 7.0%(47명),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이 4.4%(30명) 순으로 대답했다.

'4분기 수도권 분양 유망지역'을 묻는 질문(2개 응답)에는 '서초구 재건축'이 28.1%(38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남 보금자리(세곡2지구)'가 23.9%(323명), '위례신도시'가 20.6%(279명), '강북 재개발'이 12.7%(172명), '경기 택지지구'가 7.7%(104명), '동탄2신도시'가 7.0%(94명)로 가장 적었다.

'4분기 지방 분양 유망지역'을 묻는 질문(2개 응답)에는 '구도심 재건축·재개발·조합'을 꼽은 공인중개사가 29.0%(39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 혁신도시'가 26.0%(357명), '세종시'가 17.0%(233명), '지방 택지지구'가 14.0%(196명), '지방 산업단지 인근'이 13.0%(172명)로 조사됐다. /김두탁기자 kimdt@

더 강력해진 '패셔니스타' 아우디

■ 아우디 A7 55 TDI

럭셔리 세단과 쿠페 같은 스포티함 '매력적'
배기량 성능 강화… 최고급차 대안으로 적격

▲한 줄 평가: 강력해진 성능을 갖췄고 경쟁차보다 저렴하다. "가성비"는 동급 최고다. ▲평점: ★★★★★

최고급차는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싶은 대상이지만, 막상 소유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왠지 뒷자리에 앉아야 어울릴 것 같고, 직접 몰면 운전기사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럴 때 필요한 차가 이번에 소개하는 아우디 A7이다.

A7은 우리나라에 2011년 7월에 처음 선보였다. 럭셔리 세단이면서도 쿠페 같은 스포티함이 많은 오너들을 매료시켰고, 최고급차의 대안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당시 엔진 라인업은 배기량 3.0ℓ에 가솔린과 디젤, 2가지로 선보였다. 모델명은 3.0 TFSI(가솔린), 3.0 TDI(디젤)로 불렸다.

올해 6월에는 이러한 명칭 체계를 새롭게 정의한 '다이내믹 배지'를 도입하면서 기존 3.0 TDI는 45 TDI로 불리게 된다. 오늘 소개하는 55 TDI는 같은 배기량에서 성능을 강화한 모델이다.

45 TDI와의 가장 큰 차이는 바이 터보(트윈 터보) 방식의 TDI 디젤 엔진을 얹었다는 점이다. 기존에 선보인 모델은 싱글 터보차저가 장착돼 있으나 55 TDI는 2단계로 작동하는 두 개의 터보차저로 출력과 토크를 끌어올렸다. 최고출력은 313마력(3900~4500rpm), 최대토크는 66.3kg·m(1450~2800rpm)로, 45 TDI에 비해 최고출력이 나오는 엔진회전수 구간은 조금 넓어진 반면, 최대토크 구간은 약간 좁아졌다.

245마력의 45 TDI로도 충분한지만 더 강력한 엔진을 이유는 BMW 640d의 등장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두 차는 약속이나 한듯이 최고출력이 313마력으로 같고, 0→100km/h 가속시간도 5.3초로 같다. 최대토크는 A7 55 TDI가 2kg·m 높다. 또 하나의 경쟁차인 메르세데스 벤츠 CLS는 경제성을 중시한 250 CDI(204마력)만 수입되기 때문에 이들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다.

변속기는 높아진 출력과 토크를 감당하기 위해 기존 7단 대신 50 TFSI(기존 3.0 TFSI)에 장착된 8단 팁트로닉을 선택했다. 1단 기어비는 4.714로 45 TDI의 3.692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고, 8단 기어비는 0.667로 45 TDI의 7단 기어비 0.462보다도 높다. 반면 55 TDI의 최종감속비는 2.375로 45 TDI의 4.093에 비해 크게 낮춰 놓았다. 저속에서의 발진력과 고속에서의 가속력, 연비 향상을 한꺼번에 노린 세팅이다.

새로운 엔진을 얹은 55 TDI는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파워를 저속부터 고속까지 꾸준하게 뿜어낸다. 45 TDI보다 공차중량이 50kg 무거워졌지만 엔진 파워는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차체 밸런스와 핸들링도 흠잡을 곳이 없다.

더욱 놀라운 점은 연비다. 도심 11.2km/ℓ, 고속도로 15.2km/ℓ, 복합 12.7km/ℓ의 연비는 45 TDI와 비교할 때 도심에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같다. 그 결과 45 TDI의 복합연비 13.1km/ℓ와도 큰 차이가 없다. 도심과 간선도로를 4:6의 비율로 섞어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10.5km/ℓ를 기록했다. BMW 640d는 도심(11.9km/ℓ)에서 A7 55 TDI보다 앞서고 고속도로(14.6km/ℓ)에서는 약간 뒤진다.

아우디 A7 55 TDI는 다이내믹 모델 9730만원, 프레스티지 모델 1억560만원으로, BMW 640d(1억1690만~1억1890만원)보다 가격이 싸다. 55 TDI의 등장으로 640d와 대결구도는 더욱 볼만하게 됐다. /ferrari5@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중국 사로잡았다

고객품질만족도 조사… 7개 모델 1위 올라

현대·기아차가 중국 소비자 품질만족도 조사에서 7개 모델을 1위에 올리며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대·기아자동차(회장 정몽구)는 중국질량협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4 고객품질만족도 조사(CACSI: China Automobile Customer Satisfaction Index)에서 현대차 베르나, 밍투(사진), 투싼, 투싼ix와 기아차 K2, K3, 스포티지 등 총 7개 차종이 각 차급에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차급별 평가와 함께 발표되는 업체별 정비와 판매 만족도 평가에서도 현대차가 정비 만족도 1위에 오르는 등 양사 모두 상위권에 입상했다.

이번에 발표된 고객품질만족도 조사는 중국 정부 산하기관인 중국질량협회의 전국고객위원회가 주관하며, 매년 농업, 공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친 소비자 만족도 조사다.

특히 올해 자동차 부문 평가는 55개 브랜드의 153개 차종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중국 주요 52개 도시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량의 ▲디자인 ▲성능 ▲품질신뢰성 ▲정비 및 판매 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면담 조사를 통해 22개 차급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대·기아차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산업수요가 크고 경쟁이 치열한 소형 및 준중형 부문에서 전통적인 강세를 이어갔다.

현대차 베르나와 기아차 K2는 7만 위안 이상 소형차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으며, 기아차 K3 또한 81점으로 폭스바겐 라비다, 닛산 실피 등과 함께 10~15만 위안 준중형차 부문 공동 1위에 올라 준중형 차급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 8월까지 9만7901대가 판매된 K2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같은 차급에서 1위를 기록하며 중국 소형차 시장의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 선보인 현대차 밍투는 출시 후 첫 평가에서 우수한 신차 품질을 인정받으며 83점을 획득, 10만 위안 이상 신차 부문 1위에 올라 올해 중국시장 내 최고의 신차로 등극했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는 현재 중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SUV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 스포티지는 10~15만 위안 SUV 부문에서 80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15~20만 위안 SUV 부문에선 투싼ix가 81점으로 1위에 올라 중국 고객들에게 품질과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스포티지는 국내에서 단종된 구형 모델 기반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고객 만족 1위를 차지하며 기아차의 위상을 높였다.

현대·기아차는 16개 합자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업체별 정비와 판매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란히 상위권을 달성했다. 현대·기아차는 정비 만족도 평가에서 현대차가 공동 1위, 기아차는 공동 3위를 달성했으며, 판매 만족도 평가에서도 ▲딜러망 지속 확대 ▲딜러 시설 표준화 등을 통해 현대차가 공동 2위, 기아차가 공동 3위에 오르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향후 현대·기아차는 단순한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품질을 기반으로 브랜드, 판매,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 만족을 제고하고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뛰어난 상품성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전략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기에 중국시장에 투입해 판매대수와 함께 고객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중국 현지 맞춤형 신차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에게 사랑 받는 브랜드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9.2% 늘어난 111만9893대(현대차 71만7144대, 기아차 40만2749대)를 판매해 올해 사업계획인 171만대(현대차 108만대, 기아차 63만대)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의택기자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BMW	3시리즈	2,450	2,580	2,880	3,550	4,010
	5시리즈	2,340	2,820	3,900	–	–
	뉴Z4	3,770	4,090	4,770	5,100	5,300
	뉴X5	3,700	4,600	5,180	6,600	6,630
벤츠	C클래스	2,600	2,860	3,050	3,350	3,790
	E클래스	3,300	3,470	3,840	4,440	4,710
아우디	뉴A4	2,350	2,600	2,810	3,230	3,550
	뉴A6	1,380	1,780	1,810	2,590	2,840
폭스바겐	골프6세대	1,680	1,970	2,240	2,420	2,670
	CC	2,100	2,380	2,780	2,900	3,600
	티구안	2,180	2,370	2,750	3,210	3,590

정보제공 :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재계 3세의 기를 살리자

뉴스룸에서
김 태 균
<경제산업부 부장>

경제가 위기다. 단순히 구호처럼 등장하는 1회성 문제제기가 아니다. 세계경제는 이미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역동적으로 헤쳐온 것과 같은 동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의 마지막 보루인 재계는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최근 총수 사면론을 들고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재계가 제대로 된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재계에 필요한 것은 3세대 경영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계 1위와 3위, 5위인 기업을 보면 병원 입원, 구속, 노령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피가 수혈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장하며 도전과 실패,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런 흐름에 재계도 향후 경영의 중심이 될 3세대를 동참시켜야 한다. 재계의 역사를 보면 창업주는 제외하더라도 2세대의 경우, 실패도 해보고 무엇인가 이룩한 것 등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재계 3세에겐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경영상 실패한 경험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선 먼저 재계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눈살을 재계의 행태 중 가장 못마땅한 것은 형제간 또는 사촌간의 경영권 다툼이다.

효성은 차남이 지난 2월 자신의 지분을 외국계 회사에 싼 값에 팔아버렸다.

SK도 비슷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최신원 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의 갈등이다. 최신원 회장은 장자승계를 주장하며 현재 SK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지분 요구를 원하는 반면, 구속중인 최태원 회장은 요지부동이다.

반면 참고해야 할 만한 사례도 있다. 삼성과 CJ는 형제간 분쟁이 법정 갈등으로 이어졌지만,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에서 법정에 선처를 요구하며 화해모드에 돌입했다.

현재 가족분쟁을 겪거나 내재된 효성, 금호, SK 등도 이런 전례를 받아들여 화해에 나서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요청하는 경제활성화에 동참해야한다. 지금과 같은 제살깎기식 분쟁은 재계에 대한 인식만 나쁘게 할 뿐이다. 새로운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이런 저런 비리로 수감 중인 기업인에 대한 사면론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에 대해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는 시각에 따라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루 다음날 25일 황장관의 발언에 동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작심한 듯 방문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날 만큼 엄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 중인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하여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등이다. 또한 이재현 CJ그룹회장, 조석래 효성그룹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은 병보석 또는 형집행 정지 상태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 우리경제 사정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서민경제가 파국을 맞을 지경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전통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극단의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경제살리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기업인 사면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특혜시비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수형자들도 형기의 3분의 1을 성실히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재벌총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금 재벌 총수가 묶여있는 주요 그룹의 경영 상태를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신규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욱이 해외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사면해 경제살리기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황은 달라도 지난 1960년대 '5·16 혁명'때 부정축재자로 구속된 재벌총수들을 풀어줘 경제개발에 동참 시킨 전례가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 기여도를 비롯해 고용증진, 외화가득, 납세실적, 사회공헌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원칙을 세워 사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토프리즘 '추억 만들기'

계절이 바뀌고 있다. 소슬한 바람이 청춘남녀를 성곽위로 불러모았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낙산공원 성곽길에 한 연인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팬택 매각, 부메랑 될까

기자수첩
정 혜 인
<경제산업부 기자>

법정관리 중인 팬택이 결국 공개 매각공고를 내고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다음달 초에는 인수 의사를 가진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한 것처럼 국내 업체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인도나 중국 기업이 새주인명단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팬택이 보유한 스마트폰 기술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팬택은 5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 기업이다. 삼성·LG 등 대기업이 화려한 벤처 신화를 만들어온 데에는 이 기술력이 큰 역할을 했다. 지문 인식, 동작 인식, 메탈 소재 등을 스마트폰에 빠르게 탑재하며 기술만큼은 업계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팬택이 해외 자본에 매각되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2004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투자없이 기술만 빼내간 사건도 있었다.

포화상태로 치닫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은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팬택의 기술을 흡수한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LG전자는 아직 큰 성과를 얻진 못했다. 팬택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결국 부메랑이 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국가나 다른 기업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산업계가 겉으로는 '창조 경제'를 외치면서 내실 벤처기업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는지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디지털 권력 구조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가수 서태지가 악성루머에 대한 법정 대응을 고려한다는 기사가 떴다. 자신과 아내에 대한 악플러의 활동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제 악플러에 대한 연예인·정치인의 강경 대응은 일반화됐다.

이에 대한 법적 수행 주체인 사법기관 역시 엄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유언비어는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오죽하면 '안 보이면 나라님도 욕한다'는 말이 있을까. 이 말의 함정은 '안 보이면'에 있다. 비방을 안 보이게 하거나 안 들리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너무 잘 보이고, 잘 들리는 인터넷이라는 플랫폼 위에 비방을 늘어놓는 건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는 셈이다.

2010년도에 스마트폰을 썼던 지구인은 5억 명이었다. 2014년 현재는 26억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선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기기의 성능은 무한 확장으로 치달았다.

보다 다루기 쉽고 편리하고 높은 수준이 요구됐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대를 가져왔다. 운동·레저·보안 등의 특화된 산업 분야를 벗어나 의료·패션·유통 등으로 일상화됐다. 개인을 위한 맞춤형을 넘어 가족이나 지인, 심지어 사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개인정보보호란 이슈는 어느 새 편리함에 묻혔다. 주민번호만 사용하지 않을 뿐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사람과 사회 사이를 흘러 다닌다.

내달 부산에서 열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이번 회의의 쟁점이 인터넷 통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독립적인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러시아·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없길 바라는 미국 주도 국가간의 디지털 전쟁 서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은 인터넷의 통제가 국민이 가진 자유를 침해하느냐와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등 국가가 가진 존재 정체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느냐다.

인터넷이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모두의 것이라는 주장이 아직은 우월하다. 정보의 개방, 확장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가진 국가가 더 많다는 얘기다.

데이터는 특정 기기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뿌려지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 흐르거나 보관된다. 양이 늘어나면 더 큰 서비스 주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권력 구조를 걱정한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하이트진로, 中 주류 시장 휘젓는다

全 제품 평균 전년比 50%↑…2017년 1000억 매출 예상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지난 24일 중국 상하이 푸동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하이트진로의 중국 주류 시장 진출 성과 발표 기자 회견장에서 있은 김인규 사장의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설명보다 간단 명료하게 하이트 진로의 현재 모습을 잘 나타냈다.

이미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자신감과 함께 계속해서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계획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는 1994년 일찌감치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렸다. 세계 각국의 주류제조·유통사들이 우리나라 공략에 나서면서 국내 주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은 거리상이나 시장 규모에서 매력적인 곳이다.

지난 24일 중국 상하이 번화가에 위치한 지우광 마트 내 주류 판매 매장에서 현지 판촉사원들이 고객들을 대상상으로 하이트 진로의 맥주와 소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영일기자

하이트 진로는 중국 법인 영업을 시작한 2008년 5477만 위안(약 93억1500만원)의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7억1400만원 적자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2010년에는 2008년보다 매출이 92억8000여 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처음으로 3억6000여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반전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1억4000만 위안(약177억원)으로 사상 첫 '매출액 1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도 10억4000여 만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보다 36.9% 증가한 221억5000여만원까지 끌어 올렸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뉴 하이트(New hite)'를 앞세워 중화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산은 수입맥주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뉴 하이트'가 20년간 300억 병 이상이 팔린 대한민국 대표 맥주라는 점을 부각 시키고 한국제품이라는 원산국 이미지를 강조해 고객들에게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 상해·북경지역에는 쓴 맛을 줄이고 청량감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강조한 '뉴 하이트'를 이달부터 상해지역에 선보이고 있다.

동북 3성에서는 독일산 흑맥아를 사용한 진한 흑맥주 타입의 'Dark Prime'과 강하고 풍부한 맛을 최적화시킨 알코올 도수 5도의 'Hite eagle' 등을, 복주지역과 심천지역에는 국내 제품과 동일한 하이트·맥스·참이슬 등의 자체 브랜드를 중점으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 중국내 '별에서 온 그대' 등의 드라마로 인해 새로운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트랜드를 반영해 '한국치킨=한국맥주, 한류대표 맥주는 하이트'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또 한국과 달리 온라인 마켓에서도 가능한 주류 판매를 적극 활용해 중국내 유통 채널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런 전술에 힘입어 하이트진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두자리 수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일본에 이어 중국에서도 성공신화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까지 매출 기대액은 1000억원으로 이는 2008년보다 10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강강술래, "드라마 인기에 방문고객 30%↑"

MBC드라마 '내생애 봄날' 지원 효과 톡톡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 MBC 새 수목드라마 '내 생애 봄날'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고수하며 인기를 끌면서 홍보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특히 지난주 방송에 늘봄농원점이 소개된 이후 방문고객이 30% 이상 늘었고 예약문의도 쇄도하는 등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이에 강강술래 전 매장에서는 10월 3일까지 방문고객이 와인(카르멘 롤텐 멜롯) 1병을 시키면 결제시 와인(카르멘 롤텐 카버네쇼비뇽) 1병을 무료 증정한다.

또 기존 멤버십 회원고객이 구이메뉴(정식류·해피아워 제외)를 시키면 10% 할인혜택을 주며, 행사기간 동안 신규가입 멤버십 회원에겐 포인트(1000점) 무료 적립 및 냉면상품권(1매)을 준다.

같은 기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간편가정식(칠칠한우떡갈비·흑임자한돈너비아니·통등심돈가스·모짜렐라돈가스)도 2세트를 사면 1세트 더 주는 '2+1 덤증정' 행사도 함께 벌인다.

한편 9월 30일까지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6팩·18인분)는 3만4400원, 소용량박스(350㎖·10팩·20인분) 3만78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50g·10봉) 3만60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정영일기자

던킨도너츠, '맨하탄 드립 커피' 출시

던킨도너츠(www.dunkindonuts.co.kr)가 아침을 깨우는 신선한 '맨하탄 드립 커피'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커피원두를 기존과 다른 새로운 로스팅 공법으로 제조해 커피의 신선함을 강화시켰다.

특히 더욱 부드럽고 풍부한 산미를 지니고 있어 던킨도너츠의 아침메뉴인 모닝콤보를 비롯해 핫밀·도너츠 등과 함께 즐기기 좋다. 권장소비자가격은 2300원.

뉴욕의 중심 맨하탄에서는 던킨 드립 커피가 아침 시간대에 1초에 한 잔씩 팔릴 정도로 뉴요커들에게 인기가 높다. 60년 이상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미국 던킨 드립 커피를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신선하고 풍부한 맛을 구현했다.

한편, 던킨도너츠는 29일 글로벌 커피 데이를 맞아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 설치 고객을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동안 맨하탄 드립 커피를 무료로 증정한다. 또 던킨도너츠 테이크아웃 컵 'KIN-CUP'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기념해 해피포인트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 5잔 구매 시 HOT 아메리카노(S) 1잔을 증정하는 '커피 5+1'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영일기자

제철 수산물도 모바일·온라인 장보기 급증

전문관 오픈·상품력 강화

대형마트가 주춤한 사이 온라인과 모바일 장보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배송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철 신선식품 매출도 꾸준히 늘고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분기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음·식료품(9.6%), 농수산물(2.5), 생활·자동차용품(13.2%)등의 온라인 거래액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은 전분기 대비 음·식료품과 농수산물이 각각 6.7%·26% 씩 늘어났고, 생활·자동차용품은 25.1% 뛰었다.

온라인 유통 업계도 올해 관련

매출이 세자리수까지 급증하자 전문관 오픈·상품력 강화 등 경쟁력 키우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11번가는 신선식품에 힘을 싣는다. 지난 24일 오픈한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 전문관'은 큐레이션 서비스가 핵심이다. 지자체와 손잡고 '경기 사이버 장터' '전북 거시기 장터' 등에서 품질 검증을 거친 상품을 판매하고, 100여 명의 농어민이 직접 이름을 걸고 먹거리를 추천하는 '산지 직송' 코너도 운영한다. 향후 지역상품 NPB 공동 개발·우수산지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옥션은 판매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문을 연 '파머스토리' 전문관은 이 서비스를 도입해 신선식품 구매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모바일로 장을 보는 '엄지족'을 공략하기 위한 대응도 나오고 있다.

G마켓은 쌀·생수·라면·화장지 등 생필품과 마트 상품을 모은 '모바일 마트'를 오픈했다. G마켓 상품 담당자가 상품을 직접 고르고, 일부 상품은 묶음배송도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G마켓 모바일에서 마트 상품 매출은 작년보다 300% 증가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크리스피 크림 도넛, 뮤지컬 대관 행사 성료

크리스피 크림 도넛과 엔제리너스커피이 함께 지난 25일 역삼 LG아트센터에서 벌인 고객 초청 뮤지컬 '프리실라' 대관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8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초청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연 전 초청된 고객 전원에게 크리스피 크림 도넛 77주년 머그와 핸드워시 기프트백(GIFT BAG)을 증정하고 달콤한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과 엔제리너스커피의 향긋한 아메리카노를 각각 제공됐다.

또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및 현장에서 참여 가능한 페이스북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렸다. 공연 후에는 사전 문자 발송과 배우의 추첨 등을 통해 당첨된 40명에게 엔제리너스에서 텀블러와 크리스피 크림 도넛 제품 교환권을 증정하는 깜짝 이벤트도 열렸다. /정영일기자

베스트셀러 화장품이 반값

더페이스샵, 10월 3일까지 최대 50% 할인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베스트셀러 할인 행사를 벌인다.

10월 3일까지 더페이스샵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3만원 이상 제품을 산 고객에게 지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연간 2500만장 이상 판매되는 베스트셀러마스크시트 전품목 및 팩류 전품목, 가을겨울철 피부에 고보습 효과를 주는 '스밈발효원액크림' 대용량 등에 50%의 높은 할인률을 적용했다.

가을 광고제품인 '망고씨드 뽀얀 윤기 데이트 버터'와 프리미엄 한방 제품 '명한 미인도 만능고' '명한 미인도 환생고' '명한 미인도 천삼송이' 전품목, '페이스 잇 파워 퍼펙션 BB크림' '페이스 잇 아우라 CC크림' 등 메이크업 제품도 30% 할인한다.

30% 할인하는 '망고씨드 뽀얀 윤기 데이트 버터'는 미백과 주름개선 이중기능성 페이셜버터로 올 가을 추력 제품이다. 9월 출시 후 브랜드 모델 수지의 TVCF '뽀얀 윤기 촉촉촉, 화장이 착착착' 편을 방영해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핵심성분인 100% 식물성 망고씨앗 버터는 비타민·필수 아미노산·식물성 스쿠알렌 등이 풍부해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체리씨앗 추출물이 피부 속부터 건강해 보이는 뽀얀 윤기를 만들어 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특히 체온에서 생크림처럼 부드럽게 착 스며드는 수분 버터 제형으로 끈적임 없이 사용하기 좋다. /박지원기자

카무플라주, 男心을 훔치다

화려한 패턴… 셔츠·재킷에 두루 활용

'남자의 계절'을 맞아 과감한 패션을 즐기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카무플라주(군복처럼 얼룩덜룩한 무늬) 패턴이 인기를 끌고 있다. 셔츠는 물론 재킷까지 화려한 프린트로 물들었다.

격식을 갖추면서 트렌디한 면모를 드러내야 할 땐 재킷을 선택하는 게 좋다. 차분한 네이비 컬러와 카무플라주 패턴이 어우러진 재킷은 비즈니스 맨들에게 제격이다. 이때 화이트 셔츠와 데님 팬츠와 함께 입으면 깔끔한 룩이 완성된다.

보다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다면 밝은 색상으로 눈을 돌려보자. 기존 군복색(카키)에서 벗어나 화사한 베이지색의 카무플라주 패턴 재킷은 고급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부토니에오 엘보 패치 등으로 디테일을 강조하면 한결 멋스럽다.

아무리 유행이라도 프린트 재킷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럴 땐 속에 입는 셔츠로 멋을 내본다.

카키색의 카무플라주 셔츠는 밀리터리룩의 느낌과 함께 남성 특유의 젠틀함을 돋보이게 한다. 패턴 셔츠는 펑퍼짐한 것보다 몸에 붙는 스타일로 몸매를 드러내야 세련돼 보인다. 블루·그레이 등 신뢰감을 주는 컬러는 셔츠 소매를 가볍게 걷어 올리면 활동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패션 브랜드 관계자는 "카무플라주 패턴의 의상을 입을 때는 패턴 자체가 화려한 만큼 액세서리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며 "블루·네이비 컬러는 차분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사막처럼 건조한 피부에 필요한 것은? 28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산타마리아 노벨라 매장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수분라인 스킨케어를 선보이고 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400년을 지켜온 수도사의 전통 제조법을 계승, 자연에서 얻은 원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이탈리아 스킨케어 브랜드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메마른 피부 '미스트'로 촉촉히

화장 전·후 수시로 뿌려야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탄력이 떨어지고 금세 주름이 생긴다. 건조한 가을철 메마른 피부에는 수시로 수분을 충전해주는 게 좋다. 최근 뷰티 브랜드들이 수분 공급은 물론 메이크업을 지속시켜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미스트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50% 함유된 퓨어힐스의 '프로폴리스 50 볼륨미스트'(사진 왼쪽)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 피부 진정과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미백·주름 개선 2중 기능성 인증을 받아 속부터 차오르는 광채 피부를 만들어준다.

메이크업 픽서의 원조 격인 메이크업포에버의 '미스트 앤 픽스'(가운데)는 화장 전 스킨 케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메이크업 후에 뿌리면 반짝반짝 윤기있는 피부 연출을 도와준다.

토니모리의 '닥터토니 AC컨트롤 미스트'(오른쪽)는 번들거림과 건조함이 동반되는 트러블 피부에 적합한 제품이다. 피지를 조절해 유수분 밸런스를 관리하고, 여드름을 예방·완화는 물론 흔적까지 지워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매일 입욕' 아기 아토피 치유에 효과적

맹물 샤워는 안좋아… 미지근한 물에 담궈야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환절기에는 피부의 수분 함량이 떨어져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기 쉽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의 경우 가려움증과 따끔거림으로 고생하기 마련이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중 하나가 피부 장벽의 균형이 깨지는 것인데 매일 일정 시간 몸을 물에 담그는 '입욕'만으로도 이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아토피 환아를 키우는 엄마들의 상당수가 잘못된 입욕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베이비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노 베이비'에 따르면 모바일 리서치 기관 오픈서베이가 아토피 환아의 엄마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56%가 "입욕시 체온보다 따뜻한 물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또 59%가 "아토피 피부는 맹물로 씻겨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아기 입욕제를 사용한다"는 엄마들은 35%에 불과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안지영 전문의는 "입욕은 피부 보습을 높이고 피부 장벽의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며 "매일 한 번 아기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에서 10~20분 동안 입욕을 하면 아토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부과 전문의들은 아토피 아이들은 물로만 씻겨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온누리피부과 오대헌 원장은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기를 물로만 씻길 경우 피부 표면의 기름 성분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국소 연고제·보습제의 흡수를 막고, 황색 포도알균과 같은 세균의 번식을 도와 아토피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면서 "보습·진정에 효과적인 입욕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야외활동 감염 질환 주의!

쯔쯔가무시병·렙토스피라증·유행성 출혈열 조심해야

가을엔 나들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늘어나는 야외활동 만큼 가을철 유행성 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긴팔 입고 야외활동 후 샤워 필수

먼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에 의한 '쯔쯔가무시병'을 조심해야 한다. 균을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이 질환은 해당 부위에 딱지가 동반된 궤양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1~3주 잠복기 후 오한이나 발열·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쉽게 나을 수 있으나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뇌수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렙토스피라증'은 개·쥐 등 동물을 매개로 삼는 렙토스피라균(Leptospira)이 원인이며 이 균은 숙주 동물의 배설물이나 떨어져나간 조직 등이 하천이나 호수 등 물에 유입되면서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질환은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가을에 발병하기 쉬운 병이다. 일주일에서 12일 정도의 잠복기간 후 발열과 두통, 심한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치사율은 낮은 편이나 고령자나 어린이의 경우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한탄 바이러스 또는 서울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유행성 출혈열'은 3군 법정전염병이다. 급성 질환으로 발열과 요통·출혈·신부전 등이 주요 증상이며 초기 치료를 놓치면 폐출혈이나 뇌출혈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가을철 질환은 물가·숲·풀밭 등지에서 야외활동을 할 때 감염된다. 따라서 가급적 긴팔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줄여야 하며 돗자리 등을 사용해 풀밭에 바로 앉지 않아야 한다. 또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하며 입었던 옷이나 사용했던 장구류 등은 깨끗이 세척한 다음 일광소독 후 보관해야 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온 가족이 떠나는 실속 여행!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부담없는 해외여행을 꿈꾼다면 가까운 아시아 지역이 최적의 여행지다. 호텔·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 투어미가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먼저 인천공항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아시아의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는 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추블리 부녀가 여행하면서 유명해진 곳이다. 아름다운 해변과 주위 경관이 매력적인 여행지로 10월 낮 기온이 27도 정도로 유지돼 또 한번의 여름을 만날 수 있다.

화려한 이색 파티를 경험하고 싶다면 축제의 도시 홍콩이 제격이다. 홍콩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홍콩 관광청과 홍콩 디즈니랜드가 공동으로 핼러윈 축제를 개최한다. 핼러윈 음식 프로모션과 다양한 이벤트가 가득하며 어디서든 길거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베트남 다낭은 가족여행은 물론 신혼여행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곳이다. 라오스와 인접한 다낭은 150㎞에 이르는 해변에 동양 최대의 백사장에서 푸른 바다와 눈부신 모래를 감상할 수 있다. 더욱이 낮은 물가 덕분에 항공부터 숙박·음식 등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캠핑푸드·불빛축제·증강현실'을 한번에~

매직가든, '올 인원' 코스 선봬

일영허브랜드에서 선보이는 '매직가든'이 올 가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고급 와규로 캠핑푸드를 즐길 수 있는 '매직가든 WITH 블랙마블'과 화려한 LED 조명이 선사하는 불빛 축제인 '빛의 정원 페스티벌', 증강현실 체험 콘텐츠로한 '내친구 다이노 공룡체험전'을 마련해 가을을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블랙마블은 서울 논현동의 유명 맛집인 '블랙마블' 본점의 식자재와 매뉴 등을 그대로 옮겨왔다. 여기에 일영 허브랜드의 친자연적인 공간에서 마치 캠핑을 하는 듯한 콘셉트를 더해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화려한 조명이 가을 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며 일영허브랜드의 자연과 어울어지며 한층 분위기 있는 가을 밤을 연출한다. 특히 '매직가든 WITH 블랙마블' 이용객이라면 따로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어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다.

또 아린이들에게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증강 현실 체험인 '내친구 다이노 공룡체험전'을 함께 진행한다. 롤러코스터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입장료는 7000원.

/정영일기자 prms@

생활용품 '착한 디자인' 눈길

사용자 편의성 고려

생활용품 업계에 색다른 디자인 경쟁이 불 붙고 있다. 최근 가구·주방용품 업체들에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디자인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 디자인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제품·환경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먼저 옥소굿그립(사진)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전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계량컵의 경우 비스듬한 표면에 계량 숫자가 표시돼 허리를 숙일 필요없이 계량된 눈금을 확인할 수 있다. 부드럽고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손잡이를 제작해 안정감 있는 그립감을 제공한다.

또 가구업체인 에이스침대가 독점 수입하는 노르웨이 가구회사 에코르네스의 '스트레스리스'는 앉았을 때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에 대한 반응을 고려해 디자인됐다. 몸 전체 움직임과 하중에 따라 자동 조절되는 '플러스 시스템'을 적용해 몸을 기댔을 때 무게에 맞게 자연스럽게 머리·허리 등의 각도가 조절된다.

라미의 '사파리' 제품은 뛰어난 내구성을 지니며 인체공학적인 그립 섹션 등 편안한 디자인으로 제작돼 서체를 구사할 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다. 큰 사이즈의 클립을 적용해 보관도 용이하다.

/김수정기자 ksj0215@

"매일 다른 점심 맛보세요~"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직장인들을 위해 이로도리에서 '데일리 런치 스페셜 코스 메뉴'를 선보인다.

애피타이저와 메인 디쉬 그리고 디저트로 구성돼 있는 메뉴는 매일 다른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요일은 오징어 무침과 계절 사시미, 대구매운탕 등이 준비되며 화요일에는 오리엔탈 드레싱의 유기농 채소와 무화과 샐러드·냉소바 등을 맛볼 수 있다.

또 수요일에는 와사비 소스의 산마와 참치 무침·바다 참게살 계란찜 등이 제공되며 목요일에는 일본식 새우 칵테일과 3가지 생선구이(장어·메로·연어) 등이 차려진다.

이와 함께 금요일에는 참치 무침·계절 모둠 초밥과 우동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2)2222-8659

/황재용기자

쉐라톤 인천호텔, AG 특별 행사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국제방송센터가 자리한 송도 컨벤시아와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쉐라톤 인천 호텔이 인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먼저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는 다음 달 4일까지 아시아 다양한 나라들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아시안 요리 스페셜 뷔페'가 마련된다. 한국은 물론 태국·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요리를 각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직접 준비한다.

또 로비 라운지 커넥션에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건강 드링크 프로모션'이 이어진다. 무알코올 칵테일인 골든 메달리스트와 항산화 능력이 우수한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이용한 스무디 등 다양한 건강 드링크를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호텔은 아시안게임을 맞아 다양한 언어 서비스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을 강화했다. 무슬림을 위해 기도 방향을 알려주는 키블랏(방위 알림표)을 각 객실에 배치하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조선총잡이' 여전사 전혜빈

"이 속도와 이 느낌 그대로~"

배우 전혜빈(31)은 '정글의 법칙' '심장이 뛴다'로 연예계 대표 여전사가 됐다. 최근 수목극 시청률 1위로 종영한 KBS2 '조선총잡이'에서도 재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야심 가득한 최혜원을 연기했다. "가련한 배역이 탐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렇게 세 보이냐"며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나와 맞는 캐릭터를 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가련한 역할은 평생 못 할 거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그는 최혜원 역에 대해 "배우로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종영 후엔 "아쉬운 점이 많다"며 "박윤강(이준기)이 민중의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 최혜원은 '쑥쑥' 지나가 버렸다"고 평가했다.

"시놉시스를 보고 느낀 최혜원은 감정 변화가 극적인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실제 방송에선 뭘 좀 해 보려고 하다가 마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김 빠진 캐릭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파멸에 이르렀다면 시청자에게 연민이라도 받았을 텐데 아쉬워요. 그래도 시청률 1위로 끝나 감사할 뿐입니다."

작품에서 배우 유오성의 딸로 출연했다. 노예 신분으로 주인집을 탈출해 부를 축적한 최원신·최혜원 부녀는 서로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다.

"부녀 케미가 있었어요. 유오성 선배를 통해 '배우란 이런 거구나'를 느꼈어요. 캐릭터 하나를 두고 역사를 다 연구하세요. 현장에서 대본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할 정도로 이미 완벽하게 숙지하고 오시죠. 드라마와 영화 촬영을 병행하고 있었고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셨는데도 절대 지각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또 반영도 잘 됐고요. 나중에 선배가 연출을 한다면 그 작품에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최혜원은 오직 정수인(남상미)만 바라보는 박윤강을 짝사랑하며 가슴 앓이 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실제 현장에서 두 여배우의 기 싸움이 궁금했다.

"저도 남상미도 워낙 성격이 털털하고 캐릭터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기 싸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상미는 상체가 풍만하다 보니 한복을 입으면 체구가 있어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글래머는 한복 입으면 잘 안 어울리거든요. 압박 붕대를 해야 하는데 그 정도 사이즈는 붕대로도 안 감춰지죠. 제 경우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요. 남상미보다 한복 맵시는 더 잘 나왔던 거 같아요.(웃음)"

전혜빈은 주로 주인공 옆에 있는 역할을 맡아 왔다. 이에 대해 "주연을 한 건 몇 작품 안 된다"며 "배우로서 욕심난다"고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욕심나지만 지금이 때가 아니라면 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주연하던 사람이 조연을 하기란 쉽지 않죠.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기대하면서 사는 게 더 기뻐요. '전혜빈'하면 떠오를 수 있는 작품이 있다면 조연이라도 현재 저는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연이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해내야겠죠?"

그는 '정글의 법칙' '심장이 뛴다' '조선총잡이'를 통해 털털한 언니로 호감 연예인이 됐다. 2002년 MBC '목표달성 토요일-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에서 이사돈(24시간 도는 여자)이라는 애칭과 함께 춤 실력을 뽐내며 남성 출연진의 관심을 독차지했었다. 그러나 시청자 반응은 냉담했다. 섹시 콘셉트로 앨범 활동을 하면서도 비호감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이에 그는 "20대엔 조바심이 났다"며 "이제서야 세상과 발을 맞춰 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모두 연극영화학을 전공했고 그 이후 데뷔했어요. 처음 목표는 연기자였지만 가수로 출발하게 됐죠. 당시 질타를 많이 받으니까 외로워졌고 슬럼프가 왔어요. 제자리를 찾는 게 건강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연기자로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탄탄하게 다시 해보자고 마음 먹었고 단막극부터 뮤지컬, 연극까지 가리지 않고 하면서 경력을 쌓았죠. 사실 전 대중의 시선에 저를 맞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픔을 겪으면서 도약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고 대중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천천히 가니까 이제서야 발 맞춰서 가는 느낌이에요. 이 속도와 느낌으로 쭉 가고 싶습니다." 디자인/박은지

최혜원 역 김 빠진 캐릭터 된 것 같아 아쉬워

글래머는 한복과 잘 안 어울려

비호감에서 호감… 이제 세상과 맞춰 걷는 기분

대한민국 모든 커플들을 위해 태어났다!
올 가을 데이트, 당황하지 말고~ 그리스로 끝!

스타일리쉬 펍 레스토랑
식사 패키지

그리스 R석 1매 + 식사권 1매

~~약 92,000원~~ ▶ 68,000원 (VAT 포함)

No.1 뮤지컬 그리스

10월 19일까지! 대학로 유니플렉스!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KBS2 수목극 '아이언맨' 신세경
SBS 월화극 '비밀의 문' 박은빈
SBS 수목극 '내겐…' 차예련

가을 안방 3인 여배우 3색 변신

'발랄' 신세경·'카리스마' 박은빈·'푼수' 차예련

배우 신세경·박은빈·차예련이 기존 이미지를 벗고 드라마에서 활약 중이다. 극 초반 어색하다는 말을 들은 배우도 있지만 캐릭터 적응기를 끝낸 세 여배우는 이제 '재발견'이라는 평가와 함께 극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신세경은 '우울해 보인다'는 이미지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2009년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청순 식모'로 시선을 사로잡은 그는 이후 출연작에서 나이보다 성숙한 연기를 했고, 이 부분이 이미지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KBS2 수목극 '아이언맨'에선 당차고 순수한 손세동 역을 연기하고 있다. 고운 심성이 묻어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주홍빈은 물론 시청자도 위로하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생기있는 행동과 표정으로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신세경 측 관계자는 "'아이언맨'을 통해 진짜 신세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BS 월화극 '비밀의 문'의 박은빈도 변신에 동참했다. 1998년 SBS 드라마 '백야 3.98'로 데뷔한 이후 '명성황후' '사도' '왕의 여자' '태왕사신기' '선덕여왕' '계백' '구암 허준' 등 10여 편의 사극에 출연하며 단아한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그는 '비밀의 문'에선 치마 속까지 정치적인 인물인 사도 세자 이선(이제훈)의 아내 혜경궁 홍씨 역을 맡았다. 첫 회부터 기품을 잃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고 압도적인 눈빛 연기를 해 변신의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은빈은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한 모습을 연기할 것"이라며 "기대 이상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차예련은 SBS 수목극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서 허당스러운 여인으로 변신했다. 그의 뚜렷한 이목구비는 차가운 인상을 자아낸다. '못된 사랑'(2007), '워킹맘'(2008), '천하무적 이평강'(2009)에서 똑부러지고 자존심 강한 여성을 연기했다. '내겐…'에선 지적이고 도도한 신해윤 역을 맡았다.

국내 최고 연예기획사 AnA 총괄 이사로서 카리스마 있게 직원들을 대한다. 그러나 자신이 짝사랑하는 이현욱(정지훈) 앞에서는 푼수로 변한다. 엉뚱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극의 재미를 준다는 분석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빅뱅 일본 돔투어 3회 추가

세계 첫 단일 투어 교세라돔 7회 공연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일본 5대 돔투어를 개최하는 빅뱅(사진)이 3회 추가공연을 결정했다.

빅뱅은 내년 1월 16~18일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추가로 공연한다. 이로써 이번 투어는 총 5개 도시에서 14회에 걸쳐 진행되며 총 68만6000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회의 투어에서 7회의 교세라돔 공연을 실시하는 것은 해외 가수는 물론 일본 가수를 포함해서도 빅뱅이 처음이다.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초 돔투어 개최를 공지하자 100만 건을 웃도는 티켓 예약 응모가 몰려 추가 공연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

'빅뱅 재팬 돔 투어 2014~2015'는 11월 15~16일 나고야돔을 시작으로 20~23일 교세라돔, 12월 6~7일 후쿠오카 야후오쿠돔, 20일 삿포로돔, 26~27일 도쿄돔, 1월 16~18일 교세라돔으로 이어진다.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은 "올해도 또 돔투어로 팬들을 만날 수 있게 돼 멤버 모두 기대하고 있다. 작년보다 파워풀하고 세련된 무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중이다"며 "올해 연말은 돔에서 우리들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6대 돔투어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던 위너에 이어 이번 돔투어 오프닝 무대에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믹스앤매치'를 통해 선발된 7명의 멤버들이 YG의 새 보이그룹 아이콘으로 출연한다.

/유순호기자 suno@

연기하며 OST 부르는 '능력자들'

tvN 금토드라마 '아홉수소년' 육성재·박초롱. /CJ E&M

연기돌·가수출신 배우들, 출연 드라마 주제곡

최근 드라마에 출연 중인 연기자들이 OST(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를 직접 노래해 연기와 노래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이들의 공통점은 연기돌(연기하는 아이돌)이거나 가수 출신이라는 것이다.

에프엑스 크리스탈은 SBS 수목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서 천재 작곡가 윤세나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윤세나는 영감을 얻으면 즉석에서 곡을 만들어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를 흥얼거리는 인물이다.

1회에 등장했던 윤세나의 즉흥곡 '개또라이'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어울리지 않는 욕설 가사로 방송 직후 화제를 모았으며 음원 발매로 이어졌다. 3회에서 윤세나가 월말 평가를 위해 부른 '울컥' 역시 25일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공개됐다.

'내그녀'에서 크리스탈이 부르는 노래들은 에프엑스 그룹 활동 당시 보여줬던 색깔과 달라 팬들에겐 색다른 매력을, 시청자들에겐 드라마 내용에 맞아 떨어지는 가사로 재미를 선사한다.

tvN 금토드라마 '아홉수 소년'에서 연기자로 변신한 그룹 비투비의 육성재도 지난 25일 OST '궁금해'를 발표했다.

'아홉수 소년'은 다른 드라마에서 잘 쓰이지 않는 인디 밴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장면과 캐릭터에 어울리는 절묘한 배경 음악이 '아홉수 소년'의 또 다른 재미다. 극중 19세 열혈 유도 소년 강민구(육성재)와 그의 짝사랑 한수아(박초롱)의 테마곡인 '궁금해' 역시 두 사람의 '밀당' 로맨스를 엿보는 듯한 솔직한 노랫말과 경쾌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노래다.

지난 2004년 밴드 트랙스로 데뷔한 노민우도 자신이 출연하는 드라마 OST에 참가했다. TV 조선 새 주말드라마 '최고의 결혼'에서 노민우는 재벌가 외동아들이자 신문사 스타기자 박태연 역을 맡았다. 박태연은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부담스러워 하는 남자로 연상녀 차기영(박시연)과 화끈한 로맨스를 펼칠 예정이다.

노민우는 지난 22일 열린 '최고의 결혼'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박시연·엄현경과의 키스신, 베드신을 촬영하며 OST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민우의 소속사 엠제이드림시스 측은 25일 "노민우가 '최고의 결혼' OST에 자작곡으로 참여해 녹음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

오크 숙성에 적합한 와인

와인 숙성을 위한 오크통은 100년 이상 자란 오크나무를 판형으로 얇게 잘라내 2년 이상 자연건조시킨 후 판을 연결해 만든다. 그리고 통의 안쪽은 불로 그을리는 토스팅 작업을 거친다.

불에 그을린 오크통으로 와인을 숙성하면 바닐라 초콜릿 캬라멜 등의 밀키(milky)향과 함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 향도 배어들면서 복합적인 향과 맛을 보인다. 이를 '부케'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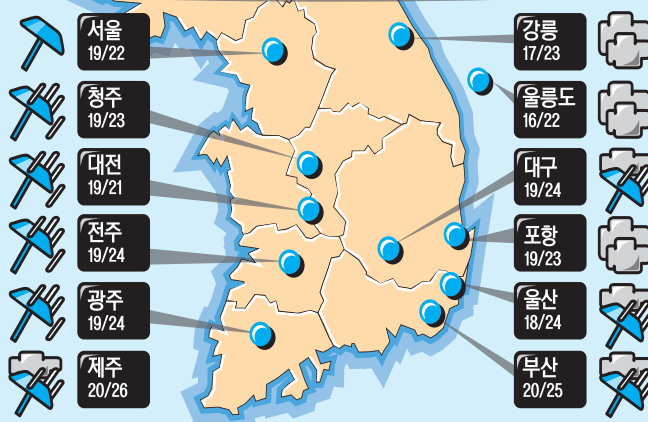
떫은 맛의 탄닌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크다. 와인의 증발도 장시간에 걸쳐 일어나는데 이 때문에 와인의 양이 줄어들고 코를 찌르는 알코올의 강한 기운이 순화되기도 한다. 와인은 또한 오랜 기간 미량의 공기와 호흡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구조도 튼튼해진다.

오크통이 워낙 비싸 일부 와이너리에서는 저가 와인의 경우 오크 조각을 넣어서 부케를 생성시키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오크의 작용과 원리를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오크 숙성에 적당한 와인'으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 탄닌이 풍부한 카베르네 소비뇽, 네비올로, 시라 등의 고급 레드와인 양조 품종은 당연히 오크통 숙성을 한다. 이탈리아의 명품 바롤로 와인을 빚는 네비올로 품종의 경우 워낙 탄닌이 강해 10년 이상을 숙성한다. 보르도 1등급 와인도 바롤로에 못지 않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템프라니요나 아르헨티나의 말벡 역시 중장기 숙성이 되는 품종이다. 대부분의 국제 포도품종은 6개월 이상의 오크 숙성이 된다.

반면 보졸레누보 등 몇몇 와인은 숙성 기간을 짧게 가지며 신선한 과일향 유지를 위해 오크통 숙성도 피한다.

화이트 품종에서는 샤르도네가 대표적인 오크숙성 품종이다. 샤르도네는 오크통 숙성을 통해 고급으로 탈바꿈하는 예가 많다. 부르고뉴의 그랑 크뤼(최고급 와인)급 와인들이 그렇다. 물론 포도 고유의 맛과 향을 잃는다 하여 오크숙성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강하다. 이들은 오크 대신 스테인레스 스틸 통으로 숙성한다.

소비뇽 블랑 등 상당수의 화이트 품종은 상큼한 산미와 과일향, 풍성한 미네랄과 풀향기 등을 살리기 위해 오크 숙성을 자제한다. /mcho@metroseoul.co.kr

당뇨병, 고혈압 등 뇌졸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걷기 운동을 통해 하반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또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전신욕 또는 반신욕이 건강에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8					4
			3		6		1	
6	8			5				
8	5						3	
		6		2		4		
	4						6	9
				3			9	2
	6		5		9			
					2		8	

1						3	8	
			2		9		1	
9		4						
		1		3		8		
2	3	8		7		1	4	5
		5		4		7		
						2		3
	5		3		7			
	6	2						8

스도쿠 정답

5	1	3	8	9	7	6	2	4
9	2	7	3	4	6	8	1	5
6	8	4	2	5	1	9	7	3
8	5	2	9	6	4	7	3	1
7	9	6	1	2	3	4	5	8
3	4	1	7	8	5	2	6	9
4	7	5	6	3	8	1	9	2
2	6	8	5	1	9	3	4	7
1	3	9	4	7	2	5	8	6

1	2	6	7	5	4	3	8	9
5	7	3	2	8	9	6	1	4
9	8	4	1	6	3	5	2	7
7	4	1	5	3	2	8	9	6
2	3	8	9	7	6	1	4	5
6	9	5	8	4	1	7	3	2
4	1	7	6	9	8	2	5	3
8	5	9	3	2	7	4	6	1
3	6	2	4	1	5	9	7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헤어진 남친과 다시 인연 맺어질까
과거는 접고 성실히 살면 좋은 결실

Q 꿈을 잊지 말자 여자 88년 4월 20일 음력 새벽 5시 50분

연애 운이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해보았습니다. 88년 음력 4월 20일 새벽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쯤 헤어져 아직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다시 시작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스쳐지나간 인연 중에 다시 시작할 인연이 있을지 아님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귀하는 의리지상(義理之상) 인 경인(庚寅) 백호의 기운을 가져 미래에 재물을 많이 얻게 되는 장점이 그득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많고 집착력, 개척정신이 잘못 판단되면 위세가 너무 지나쳐져서 실패를 자초하기도 하겠지요. 그렇다하여도 윗사람과 주변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도록 귀인의 조력이 따르는 사주로 행운아이기도 합니다. 인연은 2017년 까지는 결국 본의 아니게 서로 간에 등을 지는 형국이라 헤어지는 결과만 있기도 합니다. 남자 운이 천충지형(天?地刑)천간에서 충살 지지에서 형살(刑殺)을 맞고 있었으며 2013년 계사(癸巳)년 수극화(水剋火)하여 불이 물에 의해 꺼지듯이 남자가 극을 당하는 운이 되어 헤어졌군요.

2014년 10월지나 귀하의 연인 정화(丁火) 남자가 록지(祿地)에 있어서 그 기운이 왕성하게 되어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2015년 을미(乙未)년에도 을경합(乙庚合)을 이뤄 남자를 만나게 되지만 귀문살(귀신이 들락거리듯 비정상의 정신 상태)이 동하는 것이 되어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만나게 되는 남자와 삼각관계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 지금도 감정적인 상처나 아쉬움을 갖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떠나간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이 떠났으면 마음속에서도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생일지(태어난 날)에 칠살과 편인(偏印)의 조합은 즉시 판단하고 편견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외모보다는 내심의 파악을 잘하고 스스로를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에서 새로운 인연은 만나게 되니 사회생활 성실히 하여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29일 (음 9월 6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60년생** 예감이 좋을수록 조심할 것. **72년생** 땀 흘린 만큼 정당한 평가 받는다. **84년생** 도전정신 발휘하면 이득이 많은 날~.

49년생 급하다고 무리하지 말라. **61년생** 빚 때문에 아픈 사람은 희망 보인다. **73년생** 툭하면 약속 깨는 상사가 얄밉구나. **85년생** 절실하면 기적도 일어난다.

50년생 변명 길면 대접 못 받는다. **62년생** 작은 경사가 생기니 기대하라. **74년생** 조직의 명성 악용하면 후폭풍 거세다. **86년생** 당장 손해 보더라도 악순환 끊어라.

51년생 예측 뒤집히니 대비하라. **63년생** 새로 시작한 일은 건실해진다. **75년생** 작은 성과에 너무 나서지 말라. **87년생** 밖으로 나가면 박수 받을 일이 생긴다.

52년생 삶에 활력소 될 일 생긴다. **64년생** 자신의 생각 자루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 **76년생** 최선 다하면 벽도 뚫린다. **88년생** 명분 없는 일로 에너지 낭비 말라.

53년생 첫발도 못 뗀 일은 포기할 것. **65년생** 문서일은 미루는 게 좋다. **77년생** 물가나 높은 곳 출입은 삼가라. **89년생** 가슴을 마구 흔드는 이성이 나타난다.

42년생 좋은 일도 목소리 갈린다. **54년생** 오라 곳도 많고 갈 곳도 많아 바쁜 하루~. **66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78년생** 정도가 아니면 눈길도 주지 말라.

43년생 돈 문제는 선 분명히 그어라. **55년생** 악몽도 때론 자산이 된다. **67년생** 양다리 걸치고 행복한 고민에 빠진 형국~. **79년생** 행복해 지는 길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44년생 외출하면 눈과 귀 즐겁다. **56년생** 남의 일에 참견 자제할 것. **68년생** 공정해도 현명하지 않으면 어리석다. **80년생** 싱글은 유혹하는 이성을 조심할 것.

45년생 아랫사람 아이디어 적극 수용할 것. **57년생** 가족에 사랑받을 일 생긴다. **69년생** 매끄러운 완성보단 투박한 열정이 필요~. **81년생** 인생에 아름다운 점찍는다.

46년생 지갑 열 경사가 생긴다. **58년생** 민망한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라. **70년생** 일이 정상화 되어 근심은 하나씩 사라진다. **82년생** 어른 말에 귀 기울여라.

47년생 정품이 아니면 구입 말라. **59년생** 열정을 쏟을 일이 생겨 즐겁다. **71년생**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지 말라. **83년생** 꼼수는 갈수록 부작용 커진다.

한국 야구 또 '마법의 8회'에 끝냈다

결승 대만전 고전 끝 막판 4득점 대역전… AG 2연패

28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 한국과 대만의 경기에서 6-3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 대표팀이 경기가 끝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야구팀이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28일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에서 대만을 6-3으로 물리쳤다. 조별리그에서 태국(15-0·5회), 대만(10-0·8회), 홍콩(12-0·7회)을 모두 콜드게임으로 누르고 준결승에 오른 대표팀은 준결승 중국전에서 7-2로 예상외의 어려운 경기를 벌였고, 이날 결승전은 더욱 힘겹게 풀어갔다.

1회초 첫 공격에서 무사 만루의 기회를 날린 뒤로 점점 힘든 경기를 이어갔다. 반면 대만은 1회말 톱타자 전빈제가 김광현을 상대로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치고 린한의 2루 땅볼 때 가볍게 한 점을 뽑았다.

1회 찬스를 놓친 뒤로 4회까지 삼자범퇴로 물러나는 등 좀처럼 대만 선발 투수 궈준린을 공략하지 못하던 한국 타선은 5회 첫 타자 황재균이 좌전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다시 기회를 열었다.

강민호의 보내기번트와 오재원의 내야 땅볼, 민병헌의 볼넷으로 2사 1,3루 기회를 만들었고 손아섭이 우전 적시타로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 이어 김현수의 내야 땅볼 때 상대 유격수 반즈팡의 송구 실책으로 2-1 역전에 성공했다.

김광현은 3회부터 5회까지 세 이닝 연속 삼자범퇴로 요리하며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2-1로 앞선 6회말 린군성에게 좌전안타를 맞고 다시 첫 타자를 출루시켰다. 이후 보내기번트, 볼넷으로 1사 1,2루에 몰린 뒤 린한에게 중전 적시타를 허용해 동점이 됐다. 이은 궈옌원의 희생플라이로 추가 실점해 2-3으로 재역전 당했다.

한국은 김광현의 뒤를 이어 한현희를 마운드에 올렸고 이닝을 끝냈다. 한국은 7회 양현종을 등판시켰다가 연속 안타를 맞고 무사 1,3루가 되자 바로 안지만으로 투수를 바꿨다.

한국은 7회까지 2-3으로 끌려가며 패배의 위기까지 맞았다. 분위기를 반전한 건 안지만이었다. 7회말 무사 1, 3루 위기에 등판한 안지만은 2이닝을 퍼펙트로 막으며 역전의 발판을 놓았다.

8회초 강정호의 밀어내기 몸에맞는 공과 나성범의 내야 땅볼로 역전에 성공한 뒤 황재균이 2타점 우전 적시타를 날려 팽팽한 승부를 한국쪽으로 가져왔다. 국가 대항전에서 전통적으로 8회에 승부에 결정적인 점수를 뽑았던 대표팀은 이날 역시 '좋은 전통'을 이어갔다.

안지만의 뒤를 이어 9회에는 두 베테랑 마무리 임창용과 봉중근이 차례로 마운드에 올라 아웃카운트 3개를 가볍게 뽑아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28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장현수가 후반 43분 결승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축구 일본 꺾고 4강행

장현수 결승골… 30일 태국과 4강전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한 일본을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이광종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8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일본과 맞붙어 1-0으로 승리했다. 후반 43분 장현수(광저우 부리)의 페널티킥으로 4강행을 결정지었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23세 이하 선수들에게 와일드카드 3장을 모두 썼다. 반면 21세 이하 선수들로만 구성된 일본은 예상대로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경기에 임했다.

이전 팀들과 달리 일본은 밀집수비를 펴지 않았음에도 수비벽을 뚫기는 쉽지 않았다. 일본은 185㎝의 장신 공격수 스즈키 무사시를 앞세워 골문을 두드리려 했다. 그러나 장현수의 영리한 수비로 단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장현수의 활약은 후반전에서도 빛났다. 후반 43분 이종호(전남 드래곤즈)가 만든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슛으로 연결해 연장전 분위기가 짙던 경기를 한국의 우승으로 마무리 짓게 했다.

한국은 지난 1986년 서울 대회 이후 28년 동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조별리그 3경기부터 홍콩과의 16강전, 일본과의 8강전까지 5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는 상승세를 타고 있어 금메달 획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30일 요르단을 꺾고 4강에 오른 태국과 결승행 티켓을 놓고 경기를 펼친다. /장병호기자 solanin@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105	63	48
2	한국	42	48	47
3	일본	34	46	46
4	카자흐스탄	9	11	20
5	북한	8	8	9

<28일 현재>

한국 여자 양궁 전 종목 석권

남자 개인전만 우승… 금 5개로 마감

28일 열린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건 정다소미. /연합뉴스

한국 양궁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전체 8개 종목 중 5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

한국은 28일 인천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열린 남녀 리커브 개인전 결승에서 오진혁(현대제철)과 정다소미(현대백화점)가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고, 장혜진(LH)·정다소미·이특영(광주광역시청)으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9회 연속 우승을 노렸던 남자 대표팀은 이날 유일하게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동메달에 머물렀다. 한국은 3연속 리커브 전 종목 석권에 실패했다.

전날 열린 컴파운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도 한국의 기량이 돋보였다. 최보민(청주시청), 석지현(현대모비스), 김윤희(하이트진로)는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대만을 눌렀다. 최보민과 석지현은 개인전 결승에서 만나 금·은메달을 나눠가졌다.

최용희·민리홍(이상 현대제철), 양영호(중원대)로 결성된 남자 대표팀은 단체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유순호기자

박결 골프 여자 개인전 금메달

한국 골프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여자 골프의 박결(18·동일전자고·사진)은 28일 인천 드림파크골프장(파72)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부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잡으며 8언더파 64타,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박결은 태국의 붓사바콘 수카판(태국·18언더파 270타)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남자 골프의 김남훈(20·성균관대)은 이날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잡으며 4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대만의 반정쭝(17언더파 271타)에게 2타 뒤진 2위를 차지했다.

단체전에서 남자 대표팀은 826타를 기록, 대만(819타)의 뒤를 이어 은메달에 머물렀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3연패에 성공했으나, 단체전 4연패는 실패했다. 한국 남자 골프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유순호기자

지소연 vs 허은별 결승행 티켓 선봉장

여자축구 준결승 남북 대결… 주전 공격수 자존심 싸움

지소연

허은별

남북한 여자축구가 29일 인천아시안게임 결승 진출을 놓고 대결한다.

29일 오후 8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준결승 공격 선봉에 서는 선수는 한국의 지소연(23·첼시레이디스)과 북한의 허은별(22)이다.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약하는 지소연은 팀에서 이번 대회 출전을 허락하지 않아 8강과 4강, 두 경기에만 뛸 수 있다. 26일 대만과의 준준결승에 처음 출전했지만 기대했던 골은 넣지 못했다.

윤덕여 한국 대표팀 감독은 "아직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에서 회복하지 못했다"며 "상대의 적극적인 수비에도 힘들어했다"고 1차전에서 보여준 지소연의 경기를 평가했다.

이에 맞서 북한 허은별은 26일 중국과의 8강전에서 1-0 승리를 만드는 결승골을 터뜨리며 4강 이후 활약을 예고했다. 20일 홍콩과의 경기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한 허은별은 북한 여자축구를 대표하는 공격수다.

김광민 북한 감독은 "허은별의 상태가 좋지 않아 후반에 교체 선수로 투입했다"며 "그런데 골을 넣었으니 작전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연과 허은별은 나이가 비슷해 청소년 시절부터 자주 맞붙었다.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 선수권대회에서도 마주했고, 북한이 2-1로 승리했다. 당시 지소연은 전반 20분 김수연의 득점을 어시스트했고 허은별은 전반 37분과 38분에 연속 골을 터뜨려 팀의 역전승을 주도했다.

이번 경기엔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

한국은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안방에서 질 수 없다는 각오로 북한전 7연패 사슬도 끊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은 2002년과 2006년 대회에 이어 8년 만에 아시안게임 패권을 탈환하겠다는 의지다. 또 여자축구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총애를 받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질 수 없다는 각오다.

한국과 북한의 여자축구 상대 전적은 1승1무12패로 한국의 절대 열세다. 2005년 8월 전주에서 열린 동아시아연맹컵에서 한국이 1-0으로 이긴 이후 북한이 7연승을 거두고 있다. 한국과 북한의 여자축구 준결승전은 29일 오후 8시부터 SBS가 생중계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손연재 인천 입성… AG 첫 금 도전

세계선수권 4위 가파른 상승세… 中 덩썬웨와 접전 예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사진)가 결전지 인천에 입성했다.

세계선수권대회를 4회로 마친 손연재는 28일 오전 10시23분 대표팀 선배 김윤희(23·인천시청) 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장거리 비행으로 다소 지친 듯한 모습이었으나 팬들과 취재진의 환대에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다.

손연재는 터키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이즈미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후프 동메달을 따내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메달 주인공이 됐다. 개인종합에서는 4종목 합계 70.933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성적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키예프 세계선수권 대회 때 거둔 5위를 뛰어넘은 개인 최고 성적이다. 손연재는 2010년 모스크바 세계선수권에서는 개인종합 32위, 2011년 몽펠리에 세계선수권에서는 11위에 그쳤었다.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곧장 귀국한 손연재는 다음달 1~2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짧은 시간 안에 시차를 극복해야 하는 강행군이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올 시즌 가장 큰 목표인 손연재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가파른 상승세를 탄 만큼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손연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중국의 덩썬웨다. 덩썬웨는 이즈미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69.766점을 기록해 5위를 차지했다. 두 선수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실수를 줄이고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만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입국한 손연재는 곧바로 선수촌으로 이동해 짐을 푼 뒤 29~30일 적응 훈련에 나선다. 리듬체조 경기는 전 종목을 통틀어 입장권이 가장 먼저 매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일정 29일(월)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종목	경기장	경기
육상	아시아드주경기장	여자7종경기 등(11시)
배드민턴	계양체육관	남자단식·혼합복식(18시30분)
볼링	안양호계체육관	남녀5인조(9시)
카누	하남미사리 카누경기장	스프린트(10시)
복싱	선학체육관	남자-60kg 등(14시)
사이클	송도사이클 도로코스	여자개인 도로 결승(12시)
축구	인천축구전용경기장 / 문학경기장	여자4강전 일본-베트남(17시) 한국-북한(20시)
핸드볼	선학핸드볼경기장	남자순위결정전(12시) 준결승전(16시)
하키	선학하키경기장	여자준결승(19시)
카바디	송도글로벌대학체육관	여자예선 한국-방글라데시(10시)
요트	왕산요트경기장	레이저급 등(12시)
세팍타크로	부천체육관	남자레구 등(11시)
사격	경기도종합사격장	남자 스키트 1일차(9시30분)
수영	문학박태환 수영장	여자 다이빙 3m 싱크로 등(14시)
탁구	수원실내체육관	혼합복식 등(10시)
테니스	열우물 테니스 경기장	남녀단식 준결승(12시) 남자복식 결승(14시) 여자복식 결승(12시) 혼합복식 결승(16시)
배구	안산상록수 체육관 / 송림체육관	남자 플레이오프(10시30분, 12시)
레슬링	도원체육관	남자 자유형 61kg 등(13시)
정구	열우물 정구장	남녀 개인 단식(9시)
소프트볼	송도LNG야구장	여자 단체전(14시)
크리켓	연희크리켓경기장	남자예선 한국-중국(14시)

연합뉴스

NCSI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